

온누리교회는 하용조 목사가
1985년 10월 6일 창립한 사도
행전적 '바로 그 교회'입니다.

온누리신문

• 성경 중심의 교회
• 복음 중심의 교회
• 선교 중심의 교회
• 긍휼을 베푸는 교회
• 그리스도 문화를 심는 교회

창간 1994년 4월 3일

news.onnuri.org

2016년 4월 3일(주일) 제1093호

4월 10일 대중교통으로 교회오는 날



서빙고 장애인 차량만 허용, 교회 반경 4km 이내 주차 제한 양재 장애인, 노약자, 환자, 임산부, 유아동반 차량만 허용

4월 10일은 국내 온누리교회 10개 캠퍼스 성도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에 오는 날이다. 이에 따라 4월 9일 오후 8시부터 행사 당일까지 교회 주차장 이용이 통제된다.

서빙고 온누리교회는 장애인, 식배송 차량 등 사전 허가된 차량 외에는 교회주차장을 이용할 수 없다. 교회 반경 4km 이내 주차도 자제해야 한다. 유료주차장은 이용해도 된다.

양재 온누리교회는 주차증을 발급받은 장애인, 노약자, 환자, 임산부, 유아동반 차량만 주차장을 이용할 수 있다. 셔틀버스는 양재 역에서만 운행한다.

이날 외부 주차장(양재 환승, 구립, 시민의 숲)은 이용할 수 없다. 꼭 외부 주차장을 이용해야 한다면 주차비를 개인이 부담해야 한다. 택시를 타고 교회에 올 경우에는 강남대

로나 일동제약 앞에서 하차해 교회까지 도보로 이동해야 한다. 교회 주변에 불법주차는 당연히 할 수 없다.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은 불편함을 기꺼이 체험하면서, 환경과 교통, 지역사회를 배려하는 순기능적 캠페인이다. 지난해 4월과 10월에도 시행한 적 있다. 당시 지역사회로부터 호평을 받았다. 택시기사 김응호씨

는 “대한민국에 이런 교회가 있냐”고 했고, 버스기사 최재선씨는 “교회의 이러한 노력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교회 주변 주민들도 온누리교회의 성숙함에 감사와 찬사를 보냈었다.

사회선교 본부는 “대중교통 이용하기 캠페인은 세상에 예수님을 바로 보여줄 수 있는 좋은 기회”라면서 “주민들과 소통하고, 지역 경제와 환경문제까지도 생각하는 성숙한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저력을 보여 달라”고 당부했다.

문의: 02-3215-3434, 3436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CGNTV

오늘 개국 11주년 기념행사

CGNTV가 오늘 개국 11주년을 기념행사를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서 개최한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CGNTV’를 주제로 열리는 기념행사에서는 크레마 스튜디오(테마별 이미지 사진촬영), 다과, 안내데스크 운영 등 후원자를 위한 다채로운 이벤트가 실시된다. 개국 11주년 특집 다큐멘터리 ‘자이머시 인디아’가 오늘 오전 10시 40분에 방영된다(관

련기사 8-9면).

지난 1일에는 서빙고 온누리교회 경찬홀에서 ‘CGNTV 개국 11주년 감사예배’를 드렸다. 이재훈 담임목사, CGNTV 대표이사 유재건 장로, 배종수 장로, 윤정희 사모, 드림온맘, 교회리더십, CGNTV 임직원들이 참석해 자리를 빛냈다. 이날 이재훈 목사는 “CGNTV가 소명을 따르는 용기 있는 자가 되어 하나님의 뜻을 이

루는 공동체가 되길 바란다”고 축복했다.

한편 CGNTV가 전 세계에 후원한 안테나가 지난해 말 기준으로 1만대를 돌파했다. CGNTV는 2005년 3월부터 ‘드림온 캠페인’을 주제로 82개국에 1만 94대의 안테나를 설치했다. 아시아가 9,557대로 가장 많았고 유럽 171대, 아프리카 157대, 아메리카 78대, 중동 70대, 오세아니아 61대 순이었다. 문의: 02-796-2243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장애인을 위한 ‘굿월스토어’ 캠페인

4월 17~24일 생활용품 기증

장애인주간을 맞아 사회적기업 ‘굿월스토어’가 사용 가능한 의류, 가방, 신발, 책, CD, 화장품, 가공식품 등의 생활용품을 기증받는다. 혼자 들 수 없는 대형가전 제품이나 손상이 심한 가구, 사용한 양말 등은 받지 않는다.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서빙고, 양재, 남양주 온누리교회에 설치되는 굿월스토어 수거함에 생활용품을 기

증다 넣으면 된다. 4월 24일 이후에는 굿월스토어 홈페이지나 전화로 신청하면 된다(관련기사 7면).

굿월스토어는 장애인직업재활시설이다. 성도들이 기증한 제품들을 수선해 저렴한 가격으로 판매하고 있다. 그 수익금으로 장애인과 취약 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다.

온누리교회는 지난 5년 동안 굿월스토어 캠페인에 동참했다.

“이웃사랑선교회의 동역자가 돼 주세요”

성매매 여성을 예배자로 세우는 사역 ‘이웃사랑선교회’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온누리교회

본지에서는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농어촌 미자립교회, 지역, 기독교 기관 및 단체, 이웃들을 소개하고 있다. 우리 모두가 관심을 갖고, 이웃 사랑을 실천하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다. 아홉 번째 주인공은 이웃사랑선교회 최선 목사다. 최목사는 청량리에서 성매매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고 있다.

부활절 아침, 서울시 동대문구 청량리에 위치한 이웃사랑선교회 성도들이 기도도 예배를 준비하고 있다. 이웃사랑선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있는 성도들은 대부분 성매매 여성들이다. 일반 교회를 다니기 어려운 탓에 성매매 여성들을 위해 이웃사랑선교회가 예배처소를 만들어 줬다. 이날은 5명의 성매매 여성과 포주 한 명이 예배를 드렸다. 예배를 드리자마자 부활절 달걀을 양손 가득 들고 나섰다. 그들이 향한 곳은 청량리 윤락가였다. 기자도 동행했다.

윤락가 거리는 기괴했다. 반라(半裸)의 여성들이 쇼윈도에 앉아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다. 대낮이라 그런지 그곳을 찾는 남성들은 보이지 않았다. 어느 새 해가 지자 홍등(紅燈)이 켜지고, 거리가 붉게 물들었다. 남성들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청량리 윤락가에는 약 70개의 성매매업소가 있다. 180여 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이곳에서 생활하고 있다. 청량리 윤락가는 서울에서 가장 낮고 어두운 지역 중 한 곳이다. 성매매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도 많지 않다. 그렇다고 청량리 윤락가 성매매 여성들이 복음과 동떨어진 것은 아니다. 이웃사랑선교회 최선 목사의 석사학위논문 〈도시윤락과 선교 전략 연구: 청량리 588을 중심으로〉를 보면 청량리 윤락가 성매매 여성 30명 중 15명이 교회를 다녔거나 현재 다니고 있다. 그들 중 11명이 자신을 기독교인이라고 했다. 예수님이 세리와 창기를 두시고 “회개할 필요 없는 의인 99명보다 회개하는 죄인 한 명을 두고 기뻐할 것이다(누가15:1~7)”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성매매 여성들에게 올바른 신앙을 전수하고, 그녀들을 구원하는 것이야 말로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사역일 것이다.

이 사역에 앞장서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웃사랑선교회 최선 목사다. 2010년부터 성매매 여성들을 예배자로 세우고 있다.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예배처소

최선 목사(이웃사랑선교회 대표)가 처음 윤락가 선교에 비전을 품은 것은 2005년이었다. 최목사는 총신대학교에서 선교학을 전공했는데 선교학 수업을 들으면서 ‘나는 어디로 가



최선 목사가 성매매 여성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서 복음을 전할까’를 고민했다. 가까이 있지만 아무도 찾지 않는 곳에서 복음을 전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그렇게 찾은 곳이 청량리 윤락가였다. 청량리에서 나온 자란 최선 목사는 윤락가에서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을 본 적이 없었다. 윤락가 사역을 하려고 5년 동안 준비했다. 실태 조사, 구체적인 사역 방법, 상황별 대처법, 선교학 공부 등 치밀한 준비를 마친 2010년 3월 28일, 오전 예배를 드리고 청량리 윤락가로 향했다. 최목사의 손에는 성경말씀이 적힌 간식이 들려 있었다.

그런데... 막상 성매매 여성들을 마주하자 입도 뻥긋 할 수 없었다. 5년 동안의 준비가 헛수고인 것 같았다. 어렵게 “교회에서 왔어요”라는 말을 꺼내고는 또 다시 아무런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래도 좌절하지 않았다. 매주 찾아가고 또 찾아갔다. 어려움은 계속됐다. 성매매 여성들이 최목사를 놀리고, 비아냥거리기도 했다. 윤락가를 관리하는 건달들에게 둘러싸여 두려운 시간을 보내기도 했다. 그래도 묵묵히 성경말씀이 적힌 간식을 나눠줬다.

그러던 2010년 7월, 한 성매매 여성이 피살을 당했다. 피해자는 최목사가 청량리에서 처음으로 복음을 전한 성매매 여성이었다. 당시 엄청난 충격을 받은 최목사는 성매매 여성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일이 얼마나 시급하고, 중요한 일인지를 다시 한 번 깨달았다.

그날 이후 눈이 오나 비가 오나 복음을 전했다. 두려워서 피해 다니던 포주와 건달들에게도 복음을 전했다. 그렇게 1년이 지나자 서서히 열매가 맺혔다. 성매매 여성들이 성경말씀을 귀담아 듣기 시작했다. 최목사가 오는 날만 기다렸다면 기도 부탁하는 성매매 여성들도 있었다. 헌금을 하는 성매매 여성도 있었다. 이즈음 선교회 사무실도 생겼다. 한목사가 자신의 전 재산이라며 500만원을 헌금했다. 그 헌금으로 조그만 선교회를 열었다.

최목사가 선교회를 연 것은 성매매 여성들과 함께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였다. 선교회가 생기기 전에는 최목사와 성매매 여성들이 인근 교회에서 함께 예배를 드렸는데 어려움이 있었다. 성매매 여성들이 예배 드리는 것을 금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시선을 견디는 것이 쉽지 않았다. 금지 않은 시선을 보내는 성도들을 보고 시험에 든 성매매 여성도 있었다. 성매매 여성들만을 위한 예배처소가 꼭 필요했다. 그곳이 바로 이웃사랑선교회다.

이번에는 운영상의 문제가 생겼다. 사례도 받지 않는 최목사가 예배처소를 계속 운영한다는 것 자체가 말이 되지 않았다. 최목사는 가슴을 치며 기도했다. 2014년 가을, 드디어 하나님께서 최목사의 기도에 응답해 주셨다. 분당 할렐루야교회 권사 몇 명이 큰돈을 헌금해줬다. 여기에 최목사의 전 재산을 합쳐 지금의 예배처소로 이전했다. 그렇게 2015년 3월, 이웃사랑선교회에서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첫 예배를 드리게 되었다. 이날 예배에 참석한 성매매 여성은 단 한 명이었다. 기운이 빠질 법도 하지만 최목사에게는 그 한 명의 예배자가 천하보다 귀했다. 6년간의 사역이 꽃이 피는 순간이라고 했다.

지금은 이웃사랑선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성매매 여성이 20명이 넘는다. 매주 적게는 5명 많게는 10여 명이 예배를 드린다. 예배 인원은 계속 늘고 있다. 포주들도 예배를 드린다. 최선목사의 첫 번째 꿈인 성매매 여성들을 위한 예배처소가 그렇게 만들어졌다.

두 번째 꿈 그녀들을 위한 ‘쉼터’

“주일날 같이 예배를 드린 성매매 여성들이 다시 윤락가로 돌아갈 때 제 가슴은 찢어집니다. 그녀들이 윤락가를 나와서 생활할 수 있는 쉼터를 만드는 것이 저의 두 번째 꿈입니다.”

성매매 여성들이 윤락가를 떠나지 못하는 가장 큰 이유는 생계다. 윤락가를 나오면 당장 생계를 이어나갈 수 없는 환경에 놓인 여성들이 대부분이다. 성매매 여성들이 윤락가를 벗어나 상처받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고, 직업훈련도 받아서 정상적인 삶을 살도록 돕는 것이 최목사가 세우려는 쉼터의 비전이다.

특히 나이가 많은 성매매 여성들에게 쉼터는 반드시 필요하다. 보통 성매매 여성은 젊은 여성들이라고 생각하는데 60~70대 성매매 여성도 있다. 80살이 넘는 성매매 여성도 있다. 윤락가를 나온 나이가 많은 성매매 여성들이 단기간에 자립한다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반평생을 윤락가에서 살아온 그녀들이 할 수 있는 일이 거의 없기 때문이다. 그래서 노년에도 윤락가를 떠나지 못하는 것이다. 국가에서 운영하는 쉼터에서 2년을 지낼 수 있지만 그녀들에게 2년은 너무나 짧은 시간이다.

“쉼터가 있다면 당장이라도 윤락가를 나올 성매매 여성들이 많습니다. 예배처소를 세울 때와 마찬가지로입니다. 제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뿐입니다. 온누리교회 성도님들도 함께 기도해주시요.”

함께 동역합시다!

최목사가 윤락가 사역을 하면서 가장 힘들었던 것은 성매매 여성들의 비아냥거림도 포주와 건달들의 협박도 아니었다. 다른 교회의 불편한 시선이 가장 힘들었다. 최목사에게 동역자 한 명이 얼마나 귀한지 모른다. 더 많은 온누리교회 성도들이 이웃사랑선교회의 동역자가 되었으면 좋겠다. 매주일 오전 11시에 드리는 예배에 참석해 성매매 여성들을 섬겨주면 좋겠다. 매주 5~10명의 성매매 여성들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 함께 예배를 드리는 것만으로도 성매매 여성들의 회복에 큰 도움이 된다. 주일 점심 식사를 섬겨줘도 좋다. 이웃사랑선교회에 후원을 하는 것도 방법이다.

온누리교회 영어예배부가 2013년도부터 이웃사랑선교회를 돕고 있다. 매월 셋째 주에 예배를 돕고, 최선목사와 함께 노방전도를 한다. 재정 후원도 하고 있다. 지난달에는 온누리교회 한 성도가 약 이천만 원에 달하는 차량 할부금을 대납해줬다. 한강공동체 기쁨다락방도 주일 예배지원 및 다양한 후원을 할 예정이다. 이 사역에 동참할 성도를 기다리고 있다.

문의: 최선 목사 010-7149-6621

영어예배 황성옥(Megan) 010-6639-6386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감사합니다

지난 3월 6일 '내대교회로 네 번째 아웃리치 갑시다' 기사 보도 이후 한 성도님이 3백만 원을 헌금하셨습니다. 그 덕분에 내대교회 지붕 수리를 무사히 마무리했습니다. 큰 사랑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일강단



이재훈 목사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요한복음 20:24~29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신약의 증거를 믿고,
부활을 증거하고, 순교했던 이들처럼 믿고, 순종하십시오.”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제자들이 조작하고, 말을 만들고, 퍼뜨렸다고 주장합니다. 그렇게 주장을 하려면 두 가지 질문에 대답을 해야 합니다.

첫째, 부활을 착각하거나 부활을 조작한 당사자들이 자신들에 관해 기록할 때 한결 같이 “믿기 어려웠다”는 반응을 쓸 수 있을까요. 스스로 거짓말을 꾸며낸 것을 “자신들이 믿기 어려웠다”는 기록으로 남길 수 있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제자들이 그런 것까지 계산해서 그렇게 했다고 말합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질문에 대답해야 합니다. 제자들이 조작한 일을 합리화하고, 거짓을 지키기 위해 자신의 생명을 내걸 수 있을까요. 두 번째 대답이 더 어렵습니다. 제자들이 거짓을 만들어놓고, 그것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내걸었다는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십자가 앞에서 두려워하면서 예수님이 끌려가실 때 도망하였던 제자들이 3일 만에 정신을 차리고, 의기투합했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이래서는 안 된다. 예수님의 죽음 앞에서는 두려워 도망했지만 예수님이 여러 번 말씀하신 것을 이루어 드려야 되지 않겠느냐?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놓고, 예수님이 부활했다고 거짓말을 하자. 그리고 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 우리가 죽자”고 결정할 수 있었을까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국의 유명한 정치가였던 ‘척 홀스’라는 사람이 닉슨 대통령 시대에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되어서 감옥에 갔습니다. 후에 그는 교도소사역을 하는 사역자가 되었습니다. 그분의 자서전을 보면 워터게이트 사건 이면에 있었던 음모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미국 최고의 두뇌를 가진 사람들이 꾸며놓은 음모에 대해 FBI가 조사를 시작하자 2주를 버티지 못했다고 합니다. 생명을 거는 문제도 아니었지만 그 거짓을 지키는데 2주를 견디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당시 힘과 권세가 없던 제자들이 자신들이 만들어낸 거짓말을 지키기 위해서 모두가 다 순교했다는 것을 어떻게 설명할 수 있을까요. 사람은 진리와 진실을 위해서 죽을 수 있지만 거짓을 위해서는 죽을 수 없습니다.

17세기 뛰어난 수학자이자 철학자인 파스칼이 쓴 <광세>라는 책은 유명한 묵상집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글입니다.

“사도들이 악당들이었다는 가설은 정말로 불합리한 것이다. 예수님이 죽은 이후 열두 명의 제자들이 모여 그가 죽음에서 다시 살았다고 퍼뜨리자고 모의하게 되는 과정을 끝까지 따라가며 상상해보라. 이것은 당시 모든 당국자들을 공격하는 것을 의미한다. 인간의 마음은 변덕과 변화와 뇌물에 약하다.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이러한 유혹으로 인해 혹은

투옥과 고문과 죽음의 가능성 앞에서 그리스도의 부활을 부인했다면 그들은 완전히 실패했을 것이다.”

그들 중 한 사람이라도 유대지도자들의 압력에 무릎을 꿇었다면 오늘날 교회는 존재할 수 없었습니다.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완벽하게 거짓을 지킬 수 있었을까요. 천만에도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부활의 실체가 없었다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그들은 목숨을 걸지 못했을 것입니다. 신약성서는 사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는 도마

오늘 본문에 나오는 도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의심했습니다. 다른 제자들로부터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소식을 듣고도 믿지 못했습니다.

“열두 제자 중 하나인 디두모라 불리는 도마는 예수께서 오셨을 때에 제자들과 함께 있지 않았습다. 그래서 다른 제자들이 그에게 ‘우리가 주를 보았소!’ 하고 말했으나 도마는 그들에게 ‘내가 내 눈으로 그분의 손에 있는 못 자국을 보고 내 손가락을 그 못 자국에 넣어 보며 내 손을 그분의 옆구리에 넣어 보지 않는 한 나는 믿을 수 없소!’ 하고 말했습니다”(24~25절).

다른 제자들이 “우리가 예수님을 보았소”라고 말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다섯 번째 나타나신 시점입니다. 도마에게 나타난 것이 여섯 번째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막달라 마리아와 여제자들에게 나타나셨고, 베드로에게 세 번째로 나타나시고, 네 번째와 다섯 번째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와 제자들이 함께 모였을 때 나타나셨습니다. 도마에게 나타나신 것이 여섯 번째입니다. 도마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다섯 번이나 증거되었음에도 그는 믿지 못했습니다. 자기 손으로 만져보고, 자기 눈으로 직접 보지 않고는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이 의심은 성격에서 나오는 것이고 기질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매사에 부정적인 면을 크게 보고, 매사에 어두운 면을 보고, 매사에 뼈뽕하게 보는 DNA가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진지한 과학적 질문과 합리적인 질문을 던져보십시오. 만약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지금까지 존재할 수 있었습니까.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면 당시 존재했던 문서들이 존재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사람들이 버렸을 것입니다. 거짓으로 꾸며진 진리가 이렇게 오랫동안 존재할 수 없습니다. 1, 2세기에 만들어진 거짓으로 꾸며진 문서들이 지금도 존재할 수 없습니다. 오늘날 6.25전쟁에 대해서, 일제강점기에 대한 거짓기록을 써서 사람들에게

돌리면 받아줄까요. 생존자들이 있고, 증언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받아주지 않습니다. 역사는 냉정합니다. 아무거나 남겨주지 않습니다. 사실만이 직속됩니다. 합리적인 의심과 정당한 질문을 던지면 해답이 있습니다. 그런데 도마의 태도가 어떻습니까. 도마는 자신의 감각을 믿고, 자신의 눈을 믿고, 자신의 손가락을 믿겠다고 했습니다. 다섯 번에 걸쳐서 예수님이 나타나신 것을 본 사람들의 증언을 믿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그런 기질을 가지고 있었습니까. 이것은 자연스런 의심이 아니라 불순종과 죄악과 악의 습관 속에 사로잡힌 의심입니다. 도마의 기질이 잘 나타나는 것이 요한복음 11장 15절입니다. 나사로가 죽어가고 있을 때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니 제자들이 말렸습니다. 제자들이 가지지 않는 것이 좋겠다고 하는데도 예수님이 가겠다고 하니 도마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도 주와 함께 죽으러 가자” 이 말이 용기 있는 모습처럼 보이지만 굉장히 회의적인 말입니다. 도마는 어두운 사람입니다. “그냥 우리도 같이 죽어버리자”고 하는 것입니다. 그는 회의주의에 빠져 있었습니다. 자연스럽고, 진지한 의심을 통해 신비를 탐구하는 하나님에 주신 밝은 면이 아닙니다. 매사에 의심을 하고, 모든 것을 평가하는 회의주의적인 사람입니다. 불순종의 모습입니다.

부활을 믿을 수 없다는 것 자체가 모순

여러분, 이 세상에 깔려 있는 사상의 밑바닥에는 회의주의가 있습니다. 증거를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믿지 않으려고 증거를 요구합니다. 믿지 않으려는 의심으로 가득 차 있으면 아무리 증거를 가져다 줘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눈으로 보고, 자기 손으로 만진 것만이 사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들이 나이가 가라앉아도 가보지도 않고 믿습니다. 소크라테스와 악수해 보지 않고도 믿습니다. 여러분, 소크라테스의 책은 사본입니다. 원본은 없습니다. 그 사본이 천년 이상 지난 다음에 발견되었습니다. 그것을 진짜 소크라테스가 썼는지 안 썼는지 어떻게 압니까. 천년 이후에 발견된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은 믿습니다. 왜냐하면 학교에서 가르쳐주기 때문입니다. 신약성경 사본이 50년에서 150년 사이입니다. 학문적으로 사본의 기간이 짧을수록 진정성이 있습니다. 어느 것을 더 믿어야 할까요. 소크라테스가 쓴 사본은 실체라고 믿고, 신약성경은 실체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아니라 안 믿으려고 발버둥치는 못된 성격에서 나오는 의심입니다.

(13면에 계속)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이 세상 많은 사람들의 의심하는 신비입니다. 의심의 존재자체는 하나님께서 인간을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시는지를 보여주는 말없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은 의심할 수 있는 능력까지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신비 앞에 의심이 생기는 것은 때로는 자연스러운 일이며, 진지한 모습의 결과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에 관한 기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특징은 제자들이 한결 같이 믿기 어려웠다는 것입니다. 의심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공포에 떨었고, 두려워했고, 그 경외감에 놀라 당황했습니다. 그들은 가장 먼저 두려웠고, 의심했고, 당황스러워했습니다. 이것은 자연스런 반응입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했거나 이해할 수 없는 신비 앞에서 우리는 당황하고, 불안하고, 의심하게 됩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이 제자들을 만나주셨을 때 그들은 확신에 이르게 되었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며 살았습니다. 심지어 순교까지 했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는 신약성서를 부인

기획-IT기술과 21세기 선교

우리는 지금 참 편리한 세상에 살고 있다. 지구 구석구석에 연결된 인터넷 세상에 살고 있어 모든 정보를 손쉽게 구할 수 있다. 어디 이뿐인가. TV, 컴퓨터, 스마트폰, 태블릿PC 등 수많은 IT 기기들에 둘러싸여 있다. 원하면 언제 어디서든 쉽고 빠르게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 편리한 IT 기기가 복음 전파에 아주 유용하게 쓰이고 있다.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거나 성경반입이 제한된 국가, 문맹률이 높아 성경책을 쥐도 읽지 못하는 사람들, 인터넷 환경이 열악한 오지 등에 현지어로 된 설교 동영상에 들어간 스마트폰을 통해 복음을 전할 수 있다.

FMnC 파송 선교사인 전생명 선교사가 'IT기술과 21세기 선교'에 대한 글을 보내왔다.

/편집자 주

하나님의 말씀은 항상 IT(Information Technology)기술을 통해 전파되어 왔다. 고대 시대의 정보 전달 수단은 돌, 가죽, 파피루스 등이었다. 족장시대에는 하나님께서 구두(口頭)로 말씀을 전파하셨고, 모세 시대에는 돌 판으로, 바벨론 포로시대에는 양가죽 두루마리로 말씀을 전파하셨다. 근대 들어와서는 IT 기술이 다음과 같이 급속히 발전하였다.

종이(인쇄술)→라디오→카세트→TV
→PC/인터넷→인공위성→스마트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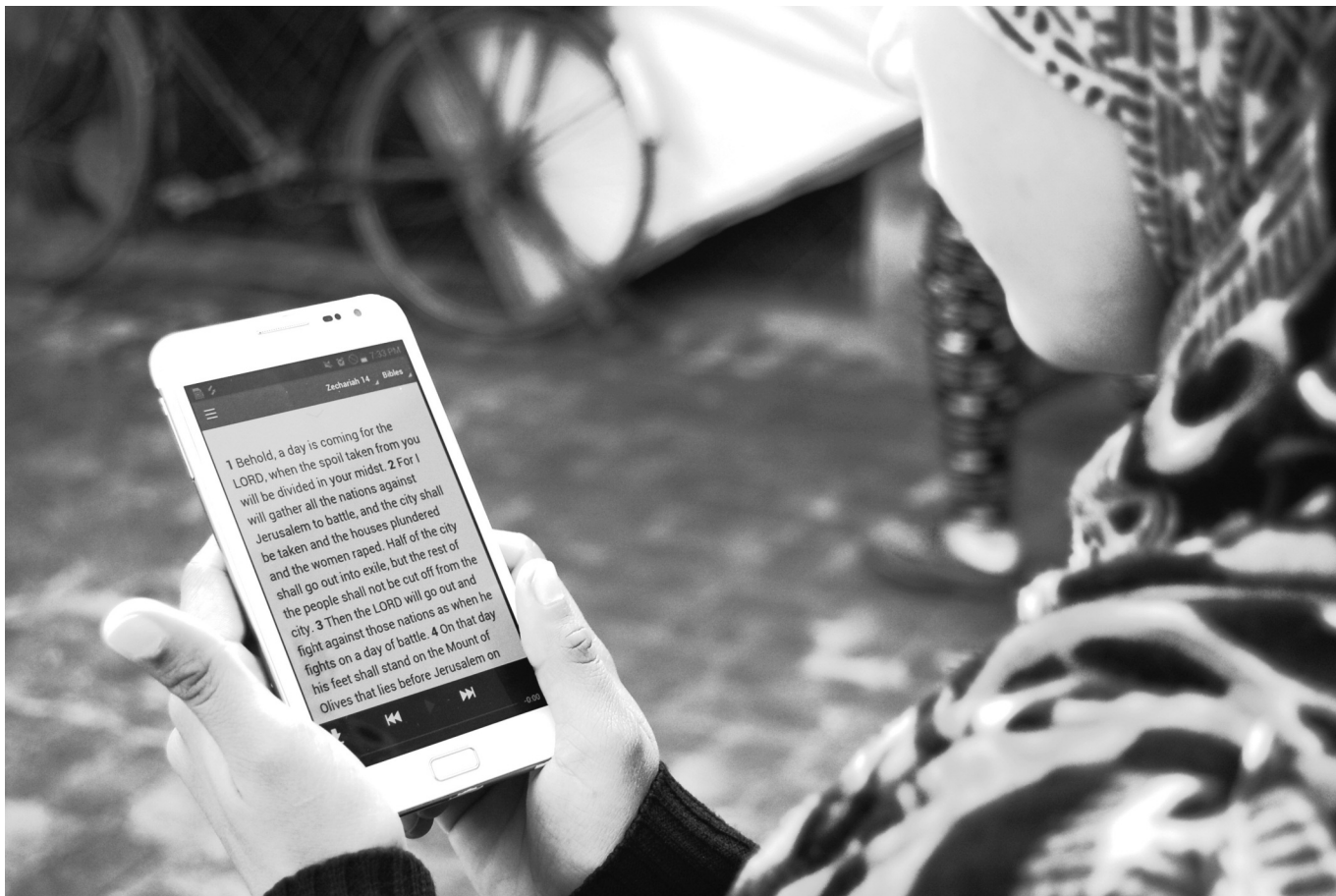
하나님께서서는 성경 인쇄, 극동방송이나 CGNTV 같은 기독교 방송매체, 설교 테이프, 교회 홈페이지, SWIM(세계인터넷선교학회) 등 IT기술을 말씀 전파에 적극 사용하셨다. 이제 21세기 IT기술은 다시 스마트폰, 알파고 AI(인공지능) 시대로 들어오고 있다. 하나님은 새로운 IT기술들을 어떻게 선교와 전도에 사용하실까? 21세기를 사는 우리는 이 IT기술들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할 것인가를 고민해야 한다.

이것만 있으면 언어 문제 해결 스마트폰 앱 '비전트립'

개발도상국 선교는 지난 수백 년 동안 장기 선교사들이 담당했었다. 그러다 항공 여행이 대중화되기 시작한 1960년대부터 단기선교도 가능해지게 되었다. 우리나라에서만 매년 1만여 팀이 해외로 비전트립 및 아웃리치를 가고 있다. 하지만 방문, 공연, 봉사 등이 주 사역일 뿐 가장 중요한 '복음 제시'는 잘 할 수 없었다. 언어 문제 때문이었다.

스마트폰은 이 한계를 넘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다. 아래는 스마트폰에 '비전트립' 앱(애플리케이션)을 깔아 단기선교에서 좋은 성과를 올린 한 고등학생의 이야기다.

"단기선교 떠나기 전 우리는 스마트폰에 '비전트립 앱'을 깔았습니다. 그리고 사용법을 미리 익혔습니다. 이 앱에는 간단한 생활회



현지어로 된 다양한 복음 콘텐츠(성경, 설교, 예수 영화 등)가 들어있는 스마트폰을 보고 있는 현지인. IT기술은 성경 반입이 제한된 국가, 선교사가 들어갈 수 없는 나라, 전기방송 시설이 열악한 오지 등에서 훌륭한 선교 도구가 된다.

화, 사영리, 찬양 등이 들어있어 클릭만 하면 유창한 현지어 발음이 스마트폰으로 나옵니다. 선교지에 도착해서 현지인들을 만나면 스마트폰을 보여주면서 중요한 이야기를 들려주겠다고 합니다. 그러면 호기심을 가지고 집중합니다. 그때 핵심적인 복음을 현지 발음의 동영상으로 들려주니 잘 알아듣고, 영접기도까지 따라 했습니다. 우리는 이 스마트폰 앱이 언어 장벽을 넘게 해주는 훌륭한 도구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단기선교 떠나기 전에 현지어를 직접 듣고, 익히고, 가다보니 우리의 발음도 상당히 유창해졌습니다. 현지 선교사님들이 우리의 발음을 듣고 '어떻게 그렇게 유창하게 현지어를 구사하느냐'고 놀랄 정도였습니다."

대학생, 특히 중고등학생으로 내려갈수록 외국어 적응능력이 빠르다. 그들에게 적절한 방법을 소개해주는 것이 중요하다. 이 앱을 개발한 사람들은 100개 언어로 확장시키기 위해 'INU4J' (I and You for Jesus)라는 선교적 기업을 세웠다. 현재 INU4J는 FMnC와 MOU(업무협약)를 맺고 이 사역에 전념하고 있다. 향후 단기선교를 갈 때 미리 이 단체들과 연락을 취하면 가고자 하는 지역의 언어 문제를 해결하는데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

안 쓰는 스마트폰을 이용한 선교

우리가 쉽게 실천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역은 스마트폰을 미전도종족에게 보내는 일이다. 우리 주변에는 아무 일없이 놓고 있는 중고 스마트폰들이 많다. 단기선교를 떠나

기 전 FMnC에 요청하면 중고 스마트폰에 다양한 복음 콘텐츠를 현지어로 넣어준다(물론 중고 스마트폰 안에 들어있던 개인 정보들부터 먼저 철저히 삭제시킨다). 복음 콘텐츠는 현지어로 된 성경, 설교, 예수 영화 등이다. 그런데 여기에는 약간의 어려움이 있다. 중고 스마트폰은 눈에 안 보이는 경비가 많이 들어간다는 사실이다. 개인정보를 일일이 손으로 삭제해줘야 하고, 고장을 미리 점검해야 하며, 오래된 배터리는 교체해줘야 한다. 중고 스마트폰마다 회사와 모델이 다르므로 까다로운 기술적 문제들을 모두 해결해야 한다. 그러다 보면 중고 스마트폰 한 대당 10만원까지 추가적인 경비를 FMnC가 부담해야 한다.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FMnC는 '코발트레이'라는 회사와 함께 6~7만원대 선교용 저가 스마트폰을 개발하였다. 이 저가 스마트폰에는 'Hot-Key'가 있어 치는 즉시 화면이 순식간에 사라지고 일반 화면으로 바뀐다. 기독교를 탄압하는 지역에서 성도들을 보호하기 위해 특수 제작한 기능이다. 이 휴대폰은 통화도 가능하지만 그보다는 선교용 동영상을 모바일 단말기에 미리 저장시키는 것을 더 중요한 목적으로 만들었다. 이 모바일 동영상 단말기는 미전도지역 선교에 다음과 같이 요긴하게 쓰일 수 있다.

문맹인 선교에 요긴하다. 아무리 성경책을 주어도 상대방이 문맹이라면 전도가 안 된다. 아프가니스탄 같은 나라는 여성의 87%가 문맹이다. 그러면 현지인들이 글을 깨우치기까지 기다릴 것인가? 너무 오래 걸린다. 게다가 탈레반은 교육을 적극적으로 방해하고 있다.

UN에 의하면 전 세계 10억 명(7명 중 한 명 꼴)이 아직도 문맹이라고 한다. 그런 사람들에게는 성경책보다 라디오, 텔레비전, CGNTV 등을 통한 오디오나 비디오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훨씬 더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매체를 통해 복음을 전하려면 그들이 TV, 라디오, 컴퓨터를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또한 전기 시설, 방송 시설 등의 기반이 그 지역에 갖춰져 있어야 한다. 21세기 복음이 미치지 못하고 있는 땅 끝은 주로 문맹 지역이거나 전기·방송 시설 기반조차 없는 오지이거나, 성경책 소지가 금지되어 있는 탄압 지역들이 대부분이다. 그렇기에 스마트폰을 이용한 선교가 유용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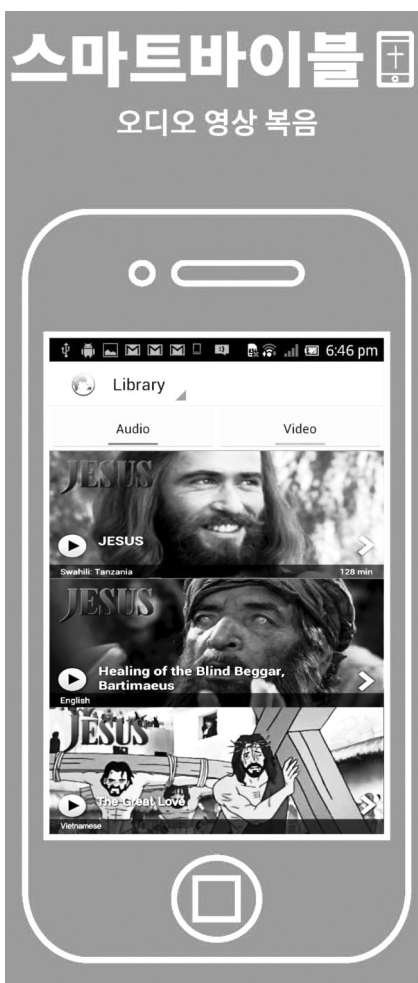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통로

스마트폰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장점인 이유는 다음과 같다.

첫째, 스마트폰과 같은 소형 모바일 기기는 PC나 TV보다 가격이 저렴하므로 보다 많은 사람들에게 보급이 가능하다(전 세계 PC는 10억대뿐이지만 이동전화기는 46억대). 둘째, 소형 모바일 기기는 PC나 TV보다 전기를 적게 사용한다. 그러므로 소형 태양열 충전기만 있어도 얼마든지 필립이나 오지에서 사용이 가능하다. 셋째, 인터넷이나 방송 기반이 없는 오지라도 모바일 기기 저장 공간을 통해 오프라인으로 많은 분량의 복음을 전할 수 있다. 참고로 44억 인구가 아직도 인터넷 인프라가 구축되지 않은 지역에 살고 있다. 넷째, 문맹인 사람들에게 오디오와 영상을 통해 복음을

‘IT기술’이 해법이다

언어, 문맹, 탄압국가에 복음 전하는 가장 적절하고, 효과적인 방법
교회 떠나고 있는 선진국 차세대 선교에도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어



FMnC는 복음전파가 제한된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스마트바이블 선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심어줄 수 있다.

온누리교회는 비전헌금과 스마트폰 수거운동으로 IT선교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의 도움으로 FMnC는 지금까지 22개국에 수백 대의 중고 스마트폰을 보내고 있다. 이 장비를 받아든 사람들은 결코 다른 방법으로는 복음을 전해줄 수 없는 열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다. 그들에게는 이 스마트폰 오프라인 콘텐츠가 복음을 들을 수 있는 지구상 유일한 통로이다. 그 모든 영혼들을 대신해 온누리교회 성도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린다. 이 사역은 철저하게 현지 선교사들의 긴밀한 협조 아래 시행하고 있다. 개인이 자의적으로 스마트폰을 현지인에게 전달하는 것을 자제하고 있다. 왜냐하면 이 사역이 현지 당국에 알려질 경우 해당 지역 선교사들이 크게 위협해 질 수 있기 때문이다. 반드시 현지 선교사를 통해서만 스마트폰을 전달하도록 권하고 있다.

선진국 복음화에도 활용되는 IT기술
기독교도 인터넷,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야

이처럼 IT기술은 열악한 지역 선교에 유용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 그러면 IT기술은 열악한 지역 선교에만 유용한 것일까? 아니다. IT기술은 선진국 복음화를 위해서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현재 선진국의 교회들이 빠르게 문을 닫고 있다. 특히 차세대들이 교회를 떠나고 있다. 왜 그들이 빠르게 교회를 떠나가고 있을까? 미국 Larry Alex Taunton은 이를 연구하기 위해 대학생들을 직접 분석해 <젊은 무신론자에게 듣다: 강한 기독교를 위한 교훈 (Listening to Young Atheists: Lessons for a Stronger Christianity)>이라는 보고서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 차세대들은 “교회가 자신들의 질문에 제대로 답을 주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떠난다”고 답했다. 14~17세 사이의 차세대들이 가장 많이 기독교를 떠나가고 있고, 인터넷과 동영상은 그들의 신앙생활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러면 교회가 차세대들이 던지는 질문에 대한 답을 해주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일까? 답이 없는 것일까? 결코 그런 것은 아니다. 기독교 서적센터를 찾아가 보면, 2천년 동안 쌓인 거룩한 지혜들이 가득하다. 극동방송이나 CGNTV 같은 기독교 방송을 열심히 청취하거나, 여러 교회 홈페이지를 찾아보면 얼마든지 답을 찾을 수 있다. 문제는 이 시대 차세대들은 여러 곳을 두루 다니며 답을 구하지 않는다는 사실이다. 현대인들의 삶의 방식은 과거와 많이 바뀌었기 때문이다. 현대인들은 무엇이든 원하는 것을 즉시 스마트폰에서 얻는 것에 익숙해져 버렸다. 스마트폰은 주인이 원하면 즉시 전 세계를 뒤져 책을 찾아주고, 음악을 찾아주고, 상품을 찾아준다. 아마존이 그렇게 책을 찾아주고, 구글이 그렇게 정보를 찾아주며, 유튜브가 그렇게 동영상을 찾아주고, G마켓이 그렇게 상품을 찾아준다.

차세대들이 교회에 질문을 던지는 방식은 이와 같은 변화의 연장선상에 있다. 차세대들이 “성경은 신뢰성이 있나요?”라고 질문하면 스마트폰이 즉각적으로 전 세계를 뒤져 가장 유명하고 권위 있는 고고학자의 동영상 강의를 보여주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인터넷 서비스들은 다 그렇게 글로벌 차원에서 통합적이고, 실시간 검색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기독교 콘텐츠는 분산되어 있다. 공급 기관마다, 미디어마다 고립되어 있고, 각자의 성곽 속에 갇혀 있다. 그래서 차세대가 묻는 “성경은 신뢰성이 있나요?”라는 질문의 답을 찾으려면 아직도 수많은 교회 홈페이지를 뒤지고, 서점을 뒤

지고, 방송 프로그램을 뒤져야 한다. 21세기 현대인들은 과거의 정보검색 방식을 대거 떠나가고 있다. 이제는 복음도 구글과 아마존처럼 편리한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한다. 공급자 중심이 아니라 수요자 중심으로, 원하는 시간에, 원하는 정보를 전 세계에서 수집하여 맞춤형으로 제공해줘야 한다.

기독교가 콘텐츠를 실시간에 통합적으로 공급해줄 수 못하고 있는데 반해 음란물, 게임, 이단 사상들은 우리 차세대의 손바닥 속으로 이미 깊이 파고들고 있다. 바로 이러한 이유 때문에 자녀와 손자들에게 스마트폰과 PC를 사주면서 불안에 떨고 있는 것 아닌가!

이제는 기독교도 인터넷, 스마트폰 안으로 들어가서 복음주의적 답을 준비해 놓고 적그리스도의 손으로부터 우리의 소중한 영혼들을 되찾아와야만 한다. 그리고 차세대들이 과학 합리의 언어로 전달되는 콘텐츠에 마음 문을 연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한다. 익숙한 학자나 존경하는 전문가의 입을 통해 기독교 콘텐츠를 공급해주면 그들은 더 쉽게 마음 문을 연다. 그들이 이러한 동영상을 보고, 마음 문을 열면 자연스럽게 그 다음 단계들 즉, 동영상에 링크시켜 놓은 교회 설교, 기독교 서적 등으로 따라 들어오게 된다. 21세기 차세대들은 이와 같은 방식의 지식 서핑(surfing)에 매우 익숙해있는 세대이다.

21세기 가장 효과적인 선교 방법 ‘바이블 Q&A 서비스’ 제공해야

차세대를 위한 ‘바이블 Q&A 서비스’가 만들어져야 한다. IBM의 ‘왓슨’이라는 AI 소프트웨어가 5년 전 미국의 퀴즈왕들을 모두 물리쳐 화제가 된 적이 있다. 퀴즈 진행자가 일상적 언어로 질문을 던져도 그것을 분석해서 백과사전, 신문, 책 등으로부터 정답을 찾아 퀴즈왕들을 물리친 것이다. 컴퓨터에 퀴즈 대신 성경, 창조론, 복음주의, 성서고고학, 설교 등 자료를 저장해두면 차세대들의 질문에 복음주의적 답을 즉각 제공해줄 수 있게 된다. 이는 결코 컴퓨터가 스스로 생각해서 영적 영역까지 침범한다는 개념이 아니다. 그보다는 질문을 주면 그에 가장 적절한 답을 미리 저장시켜 준 자료로부터 정확하게 찾아야만 사용되는 기법이 AI이다) 주는 것뿐이다. 이에 필요한 기술은 이미 알파고, 왓슨 등에 준비되어 있다. 이 시스템은 질문과 답이 모두 투명하게 공개되므로 사이버 복음이 파고들 여지가 없다.

전 세계 교회가 합쳐 이러한 콘텐츠와 서비스를 준비해야 한다. 그래야 자녀들에게 “신

앙에 의문이 생길 때마다 이 앱에 들어가서 기도하고 공부하라”고 안심하고 그들의 손에 스마트폰을 쥐어줄 수 있을 것 아닌가?

차세대들이 교회를 떠나는 것을 막기 위해서는 첫째, 그들이 신앙적으로 힘들어하는 질문에 대한 답을 인터넷에 동영상으로 준비해야 한다. 둘째, 그 분야 최고의 크리스천 전문가들이 이 동영상에 참여할수록 더 효과적이다. 셋째 이 동영상에 설교, 서적, 강좌 등에 대한 추가 링크를 제공해야 한다. 넷째, AI기법을 활용해 바이블 Q&A 검색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다섯째, 전 세계 기독교 정보들을 통합적으로 검색해주는 서비스를 제공해줘야 한다. 이러한 사역은 21세기에 매우 적절하고, 효과적인 선교 방법이다.

이제는 우리도 모두 선교에 참여할 수 있는 시대가 왔다. 꼭 선교지에 살지 않아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선교할 수 있게 됐다. 최근에는 번역 및 통역 기능이 들어있는 SNS들이 등장해 언어의 장벽을 극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위하여 우리를 새로이 부르신다.

“임자들이 이르되 어찌하여 나귀 새끼를 푸느냐? 대답하되 주께서 쓰시겠다하라”(눅 19:33-34).

당신이 가진 나귀 한 마리를 주님이 쓰시겠다고 하면 얼마나 좋을까? 선교는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이다. 이 일에 당신의 시간과 당신의 달란트가 사용되는 기쁨을 누리기를 권한다.

/ 전생명 선교사(온누리교회)

FMnC 기술, 과학 전문 선교회

FMnC(Frontier Mission and Computer)는 21세기 지식기반 사회가 요청하는 초교파 기술과학전문인 선교단체다. 복음전파가 제한된 지역에 복음을 전하기 위해 IT기술과 과학기술에 기반을 둔 창의적인 선교 전략을 펼치고 있다. 1,000여개 언어로 된 말씀 자료 확보와 미디어를 스마트폰에 담은 ‘스마트바이블’을 2014년부터 선교지로 보내고 있다.

FMnC(기술과학전문인선교회) 파송 선교사

중고 스마트폰 후원

서울시 서초구 효령로 32(방배동) 오션빌딩 3층(우: 06698)
절차: 스마트폰 기증 → 개인정보 삭제 및 배터리 교체 → 성경자료 저장(오디오, 영상) → 선교지 파송

만나고 싶었습니다

신한화학 대표 ‘오금환 집사’

“위기 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습니다”

“하나님의 꿈을 꾸는 기업을 만들고 싶습니다.”

신한화학 대표 오금환 집사(일산공동체)가 한 말이다. 그는 크리스천 경영자다운 경영철칙을 가지고 있다. 세상과 달리 영접하고, 다르게 생각하고, 성실하게 일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그의 인생은 한 마디로 사면초가(四面楚歌)였다. 두 번이나 건강을 잃었고, 운영하느라 회사의 위기도 있었다. 그때마다 하나님이 살려주셨다.

오금환 집사는 대기오염방지시설, 폐수, 하수처리장, 납극세종기지에서 사용되는 강화 플라스틱 복합소재를 만드는 환경·설비 기술자다. 그가 연구하는 강화 플라스틱 복합소재는 철에 비해 부식도 덜 되고, 가벼운 소재다. 그는 이 복합소재를 이용해 환경 설비에 필요한 파이프와 화학탱크를 만들고 있다.

그가 ‘신한화학’이라는 회사를 세우기까지 숱한 노력과 각고의 인내가 필요했다. 과거에 다니던 기계 설비 자동화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면서 자신만의 아이템으로 창업했다. 그 회사가 바로 신한화학이다. 1991년, 국내 화학공장에서 주로 사용하고 있던 철로 된 소재의 제품들은 오랜 기간

사용하면 부식되고, 유해가스가 나온다는 것을 발견했다.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강화 플라스틱 복합소재를 이용한 파이프와 공해 방지설비 사업을 시작하게 됐다. 그런데 사업은 전문 기술만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었다. 영업 기술도 필요했다. 그가 가진 기술은 흔하지 않았지만 거래처를 확보하지 못해 사업은 늘 제자리걸음이었다.

“하나님을 떠나고 싶을 때도 있었어요. 세상적인 방법으로 영업하고, 하나님께 회사를 일으켜 달라고 기도한 적도 있고요.”

1993년, 거래처로부터 인정을 받으면서 사업이 잘되기 시작했다. 개인에서 법인으로 전환하면서 회사 규모도 커졌다. 경기도 포천에 1,500평 부지도 마련했다.

2002년, 큰애가 14살, 둘째 아이가 10살이었는데 셋째가 생겼다. 사업도 잘 되고, 늦둥이까지 생겼으니 이보다 좋을 순 없었다. 그런데 그 기쁨도 잠시 곧 불행이 찾아왔다. 다리가 아파서 병원에 갔는데 뼈에 종양이 생겼다고 했다. 골종양 수술 후유증으로 다리를 절뚝거리고 다녔다. 곧이어 두 번째 병이 찾아왔다. 2003년 3월 9일, 머리가 아파 회사 근처 병원을 찾았는데 뇌출혈이었다.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하는 오금환 집사.

“의사가 저더러 자칫하면 생명을 잃을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아내에게 마지막이 될 수 있으니 수술 전에 보고 싶은 사람들을 모두 부르라고 하더라고요.”

청천벽력이었다. 한 달 후면 막내가 태어나는데... 그가 운영하는 회사 직원들은 또 어찌나. 앞만 보고 열심히 살아왔다고 자부했었다. 그런 그에게 뇌출혈이라니. 수술을 앞두고 머리카락을 자르는데 시한부 선고를 받은 것 같은 느낌이었다.

“내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 것도 없더라고요.”

11시간이 넘는 긴 수술을 마치고 기적적으로 살아났다. 한 달 동안 투병생활 끝에 퇴원하고 4월 22일 셋째 아이를 만났다. 그런데 이번에는 회사에 위기가 찾아왔다. 그가 건강을 빠르게 회복하지 못하자 문제가 생겼다. 겉에

서 병수발을 들던 아내 김성순 집사는 만나는 사람마다 남편의 건강과 회사를 위해 중보기도해달라고 부탁했다. 그런데도 회사의 어려움은 더 심각해졌다. 그렇게 믿었던 영업직원이 퇴사하면서 문제를 일으켰다. 그 타격으로 이익이 감소하기 시작했다. 그 당시 막내가 6살이었다.

기댈 곳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었다. 가정예배를 드리며 성경을 10장씩 소리 내어 읽기 시작했다. 광야의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라고 생각하고, 쉬 없이 기도했다. 어려운 상황을 벗어날 방법이 없었지만 포기하지 않았다. 주변사람들은 기도로 그를 응원했다. 그 덕에 출구가 보이지 않던 위기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회사는 부도위기에에서 벗어났고, 건강도 회복했다. 그는 지금 창조과학회에서 활동하면서 하나님의 살아계신 능력을 간증하고 있다.

73세 최고령 순장 ‘선종표 성도’

안개 순원에서 순장이 되기까지 20년



서대문공동체 누가순의 순장을 맡고 있는 선종표 순장(우)과 아내 이옥자 권사(좌).

“고단하고 힘든 삶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느끼는 시간 되게 하옵소서.”

여기는 서대문공동체 누가1순 순예배 현장. 순예배를 인도하는 선종표 순장의 기도가 묵직하다. 그는 서대문공동체에서 ‘명물 순장’으로 통한다. 공동체 최고령 순장이기도 하다. 공동체 리더십들이 선 순장을 얼마나 칭찬하는지 모른다. 서병화 장로는 “헌신된 마음이 얼마나 큰지 모른다”면서 “젊은 사람들이 이런 점을 꼭 배웠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선종표 순장은 오랫동안 안개(공동체 활동은 안하고 예배만 드리는 등록교인) 순원이었다. 교회에 등록한지 20년 만에 일대일 제자양육을 받은 성도였다. 바로 그 일대일 제자양육이 그의 신앙에 불을 붙였다. 선 순장이 교회

에 발을 내딛게 된 이유는 순전히 아내 이옥자 권사 때문이다. 교회에 다니지 않는 것이 눈치가 보여 발걸음을 했다. 다니던 회사가 부도가 나서 졸지에 실업자가 되었을 때 “마누라 말이라도 잘 들어야지”라며 동네 교회에 갔다. 그러다 1992년 온누리교회에 오게 됐다.

“아내는 92년, 저는 93년에 온누리교회에 등록했어요. 그때는 교회에 등록만 했지 잘 나오지 않았습니.”

말 그대로 무늬만 교인이었다. 교회에 등록을 했으니 집에서 순모임 하는 것을 피할 수 없었다. 밖에서 시간을 때우다 순모임이 끝날 즈음 들어가기 일쑤였다. 그렇게 20년을 보냈다. 이제 빛도 어느 정도 갠고, 숨 돌릴 여유가 생기자 아내가 회사를 그만두라고 제안했다.

충격적인 제안이었다. 왜 그런 제안을 했을까.

“아유, 말도 마요. 남편은 그야말로 술고래였어요. 그래서 일을 그만두라고 했죠. 직장을 끊어야 술을 끊을 수 있겠더라고요.”

아내의 말이 끝나기 무섭게 선 순장이 한마디 했다.

“부인하고, 내비게이션 말을 잘 들으라고 하잖아요. 아내 말을 잘 들으면 편해져요(웃음).”

직장을 그만 둔 선 순장은 그때부터 교회에 제대로 다니기 시작했다. 아내와 공동체 식구들의 추천으로 일대일 제자양육도 받았다.

“남편을 양육해준 양육자님이 정말 본받을 만한 분이였어요. 남편이 그분의 인격과 신앙에 큰 영향을 받았지요.”

그렇게 2013년 일대일 제자양육 동반자 과정을 수료했다. 당시 수료자가 203명이었는데 선 순장이 대표간증을 했다.

뒤늦게 붙은 불이 더 뜨거웠다. 선 순장은 매일 새벽 5시에 일어나 CGNTV로 서빙고 1부 새벽예배를 시청하고, 큐티를 하고나서 하루 일과를 시작한다. 공동체 활동에도 적극적이다. 나이 많다는 핑계로 도망가지 않았다. 예배 봉사, 주차 봉사도 열심히 섬겼다. 리더십

들과 교회의 요구에 겸손히 순종했다. 그런 그를 공동체 리더십들이 순장으로 섬겨 줄 것을 제안했다. 나이가 많아도 신앙경력이 짧아도 순장으로 섬기는데 아무런 문제가 없었다. 그렇게 최고령 새내기 순장이 탄생했다.

선 순장이 이끄는 순모임 분위기는 처음부터 끝까지 화기애애하다. 순원들이 서로를 얼마나 사랑하는지가 눈에 보일 정도다. 순원들은 이구동성으로 이 모든 것이 선 순장의 섬김 때문이라고 이야기 한다.

“항상 솔선수범하시고, 순원들을 잘 보살펴 주셔서 순모임을 할 때마다 즐겁습니다.”

아내 이옥자 권사에 대한 칭찬도 자자하다. “순모님이 정말 대단하세요. 순원들을 위해 작은 선물을 손수 만드시고, 순장님도 잘 보필해 주시거든요.”

순원들의 칭찬에 몸 둘 바 몰라 하는 선 순장의 모습이 마치 새색시 같다. 마지막으로 선 순장에게 소망이 무엇이나고 물었다.

“하나님께서 제게 앓은뱅이 믿음이 아니라 달려갈 수 있는 큰 믿음을 주시기를 소망합니다. 무엇보다 아내가 건강했으면 좋겠습니다.”

/ 정현주, 김미림 기자



사회적기업 ‘굿윌스토어’를 아시나요?

기증받은 물건으로 장애인,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



기증받은 물품을 닦고 있는 근로자.

세상에 쓰면 좋은 물건이 어디 있냐고 한다. 그래서 “싼 게 비지떡”이라고 말한다. 맞는 말이지만 모두 그런 것은 아니다. 만 원짜리 한 장으로 두 세 벌은 거뜬히 장만할 수 있는 곳이 있다. 질이 떨어지거나 짝퉁이 아니다. 한 뼘 한 뼘 정성스럽게 만든 수선품이다. 사회적 기업 ‘굿윌스토어’에 가면 싸고 좋은 물건을 살 수 있다.

굿윌스토어는 장애인과 취약계층을 위한 직업재활시설이다. 굿윌스토어 직원 70% 이상이 장애인과 취약계층이다. 장애인 근로자는 중증장애인과 발달장애인이 대부분이다. 굿윌스토어는 ‘자선이 아닌 기회’를 표어로 내걸고 장애인들과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제공하고 있다. 장애인과 취약계층이 경제적 자립을 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비전이다.

장애인과 취약계층 근로자들은 생산파트, 판매파트, 용역파트에서 일하고 있다. 생산파

트는 작업 공간에서 기증받은 물품을 수선한다. 판매파트는 작업공간을 거쳐 온 물품을 판매한다. 용역파트는 ‘오투기’에서 장기적으로 일감을 받아 선물세트를 포장하는 일을 한다.

우리나라 굿윌스토어 제1호 지부는 송파점이다. 이곳에서 한 해 동안 기증 받아 재사용한 물품이 784,476점이나 된다. 금액으로 환산하면 약 916,561,000원(2014년 기준)이다. 싼 가격에 놀라고, 제품의 질에 또 한 번 놀라고, 장애인들이 수선한 제품이라는 사실에 세 번 놀란다.

기부하면 생기는 기분 좋은 변화

굿윌스토어의 물건은 어디서 기증을 받을까. 대부분 기업과 교회다. 쓰지 않지만 버리기 아까운 의류, 잡화, 생활용품, 식품 등을 굿윌스토어에 기부하고 있다. 굿윌스토어에 기

부하면 생기는 기분 좋은 변화가 있다.

첫째, 기부할 물건을 찾으면서 자연스럽게 집이 정리된다. 정리정돈이 잘된 생활환경은 일상을 여유롭고 쾌적하게 살 수 있도록 해준다. 수납을 아무리 잘해도 ‘잘 쌓아둔 것’에 불과하다. 짐이 크게 줄어들지 않기 때문이다. 그래서 진짜 정리정돈을 잘하려면 나눠야 한다. 집을 정리하다 보면 쓰지 않지만 버리기 아까운 옷이나 물건들이 많다. “언젠간 필요하겠지”라면서 쌓아두지 말고 과감하게 나누자. 기증을 하고 나면 마음도 가벼워진다. ‘비움’의 가치를 깨닫게 된다.

둘째,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만든다. 기증품이 많아질수록 장애인과 취약계층의 일자리가 늘어난다. 장애인과 취약계층 가족들의 걱정도 덜어줄 수 있다. 또한 장애인들이 일을 하면서 긍정적인 변화를 경험한다. 일에 대한 성취감을 느끼면서 자신감을 갖게 되는 것이다. 내가 한 번 기증한 것이 아니라 장애인과 취약계층들에게 일할 기회를 마련해 주는 것이다. 그것이 바로 더불어 사는 사회다.

셋째, 기증한 물건은 기부금으로 책정되어 연말정산에 활용할 수 있다. 소득공제 혜택을 요청하면 굿윌스토어 판매가격 기준으로 기부금 영수증을 발급해 준다.

어떤 물건을 기부해야 할까?

구체적으로 어떤 물건을 기부해야 할까. 대체로 손으로 들 수 있는 물건이라면 무엇이든 가능하다. 사용 가능한 의류, 유아용품, 가방, 신발, 모자, 도서, CD, 레저용품, 문구류, 주방, 가사, 장식품, 목욕, 의료용품, 화장품, 술, 토스

터기, 2인용 식탁, 의자, 미역, 다시마, 초콜릿 등이 있다. 혼자서 들 수 없는 대형가전, 가구, 운동기구는 기증을 받지 못한다. 냉장고, 세탁기, 손상이 심한 장롱, 침대, 런닝머신 등이 이에 속한다. 수선이 불가능한 옷이나 더러운 내의, 사용한 양말과 스타킹, 사용한 수영복, 지퍼 손잡이 등에 손상이 있는 가방도 기증받기 어렵다. 이외에도 파손되거나 심하게 더러운 제품, 오염이 심한 이불, 쿠션, 유효기간 지난 의약품, 식품, 화장품, 냉장보관 식품도 기증받지 못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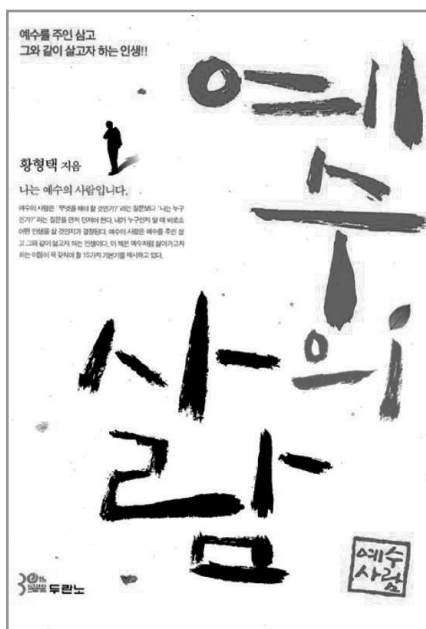
기증할 물품이 생각났다면 지금 바로 실천하자. 기증하는 방법도 여러 가지다. 서빙고와 양재 온누리교회에 4월 17일부터 24일까지 마련되는 수거함에 넣으면 된다. 가까운 굿윌스토어 매장을 방문해서 전달할 수도 있다. 직접 방문하면 2천원 할인쿠폰을 준다. 홈페이지(www.goodwilldobong.org)나 전화(02-6910-9104)로 신청하면 직원이 직접 방문해 수거해 가기도 한다. 물품기증뿐 아니라 자원봉사도 할 수 있다. 자원봉사에는 물류관리, 매장영업, 후원홍보가 있다. 물류관리는 기증품 입고, 분류, 세탁, 수선, 가격표 부착하는 일을 한다. 매장영업은 고객을 안내하고, 상품진열 및 정리정돈 등을 한다. 후원홍보는 기증하는 사람들 응대와 홈페이지 관리, 캠페인 활동 등을 한다.

굿윌스토어는 1902년 미국에서 시작된 사회적 기업이다. 미국과 캐나다에 165개 지부가 있고, 2,900여개의 매장이 있다. 한국을 비롯한 13개 국가에서 사람, 기업, 환경이라는 Goodwill(진선)의 정신을 실천하고 있다.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목회칼럼

〈예수의 사람〉을 읽고



황형택의 〈예수의 사람〉

올 한 해를 시작하면서 끊임없이 머릿속에 새겨진 네 글자가 있다. ‘예수바보’다. 부단히

예수바보의 삶을 묵상하다 한 권의 책이 눈에 들어왔다. 황형택의 〈예수의 사람〉이라는 책이다. 예수바보와 예수의 사람은 같겠냐는 생각으로 책을 읽어 내려갔다.

〈예수의 사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까?”라는 질문보다 “나는 누구인가”라는 본질적인 질문에서 시작한다. 스스로가 누구인지를 알 때 인생의 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이다. 저자는 예수님을 주인 삼고자하는 이들의 길라잡이가 되어준다.

1부 주제는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라’는 것이다. 감추지 않는 인생,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생, 마땅히 할 말을 할 줄 아는 인생, 영혼의 넉넉함을 추구하는 방법을 이야기한다. 시작은 누룩처럼 부풀리지 않고 믿음을 그대로 드러내는 것이다. 또 사람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입으로 시인하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에 만족하는 삶의 태도를 취해야 한다. 그리고 소유의 넉넉함이 아니라 영혼의 넉넉함을 채우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이것이 바로 예수의 사람임을 드러내는 삶이라고 이야기한다.

예수바보들이 사는 법

2부 주제는 ‘세상 염려에서 벗어나라’다. 여기에서는 하나님께 부요한 인생, 까마귀보다 귀한 인생,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인생, 다름을 추구하는 인생을 이야기한다. 우리는 먼저 자기중심적인 사고에서 벗어나야 한다. 탐심을 버리고 옆을 볼 수 있는 예수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 또 믿음의 그릇을 키우는 인생은 우리가 얼마나 소중하든 존재인지를 깨닫고, 모든 염려를 벗어버리는 삶을 말한다. 예수의 사람이라면 염려가 아니라 신뢰가 우리 뒷임을 안다. 다름을 추구하는 인생은 세상과 다른 예수의 능력을 갖춘 사람이다. 저자는 보물을 이 땅이 아닌 하나님께 쌓아두는 삶이 예수의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다.

3부 주제는 ‘철저히 준비하고 깨어있으라’다. 소유를 줄이는 인생, 깨어있는 인생, 준비하는 인생, 일을 맡길 만한 인생에 대해 전하고 있다. 예수의 사람이라면 언제나 전투태세를 갖춰야 한다. 등불을 미리 준비해 주님 오심을 기다리는 것이다.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하나님께서 일을 맡길만한 인생을 만들어 가는 것이 예수의 사람으로 사는 것이다.

4부 주제는 ‘뜨거운 영혼으로 살라’다. 지혜

있고, 진실한 인생, 영혼의 뜨거운 불이 붙은 인생, 시대를 읽는 인생을 말한다. 말은 것의 많고 적음이 아니라 받은 만큼 남기는 인생이 복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주를 향한 열정과 말씀을 향한 뜨거운 불꽃이 항상 살아 있어야 한다. 또한 인생은 낮은 자리에서 이 시대를 해석하고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는 자세로 믿음을 지켜야 한다.

이 책을 읽으면서 성경본문의 설명, 그것에 맞는 어휘들의 어원, 그 숨은 의미를 제시하는 저자의 설명을 통해 이야기를 더 쉽게 공감할 수 있었다. 많은 예화들이 있어 다양하고, 풍성한 맛을 느낄 수 있었다. 책에서 주신 은혜를 통해 “나는 예수의 사람이다”는 고백을 해본다. 이 고백을 통해 나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고, 염려하지 않고, 뜨거운 영혼으로 철저히 주의 날을 준비할 수 있는 힘을 얻었다. 앞으로도 깨어있는 청지기의 삶을 살기를 다시 한번 결단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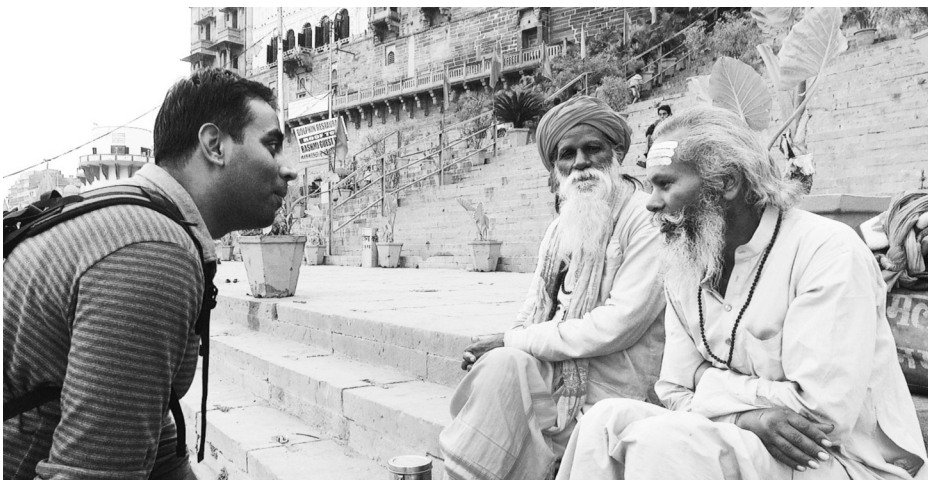
박성천 목사
(평택온누리교회)

CGNTV가 만난 정말 특별한 사람들

판카즈 전도사, 츠보이 목사, 치바 형제

CGNTV가 특별한 사람을 만났다. 그 주인공은 인도의 판카즈 전도사와 일본의 츠보이 목사, 치바 형제다. 판카즈 전도사는 한국에서 예수를 만나고 전도사가 됐다. 그는 올해 2월 CGNTV와 함께 20일 간 인도 선교여행을 함께 했다. 그는 영어, 한국어, 인도 지역어까지 두루 능통한 인재다. 츠보이 목사, 치바 형제가 두 번째 주인공이다. 츠보이 목사는 5년 전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났을 때부터, 그 곳에 남아 있는 주민들에게 깨끗한 물을 나눠주고 있다. 츠보이 목사와 동역하고 있는 치바 형제는 과거 일본 CGNTV 직원으로 지난해부터 츠보이 목사와 동역하고 있다. 그들의 발자취를 따라가 본다

/ 김미림 기자 mirim@onnuri.org



판카즈 전도사가 불교 승려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있다.



치바 형제(오른쪽)가 구호물품을 나르고 있다.

인도는 면적이 328만 7,263km²에 인구 12억 명이 살고 있는 거대한 나라다. 전승에 의하면 기원 후 52년 예수의 제자 도마(Thomas)에 의해 인도에 기독교가 전파됐다. 그러나 부흥하지 못했다. 지금은 3억 3천만이나 되는 신이 존재하는 나라가 됐다. 힌두교의 자유가 보장되지만 힌두교나 이슬람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하면 가족과 사회로부터의 핍박을 받는다. 기독교 박해지수 21위(2014년 기준)인 나라다.

판카즈 전도사는 인도의 복음화율이 떨어지는 요인은 크게 두 가지라고 했다. 하나는 카스트제도다. 인도의 기독교인 80%는 불가촉천민이다. 불가촉천민은 힘든 일을 담당하고, 승진과 결혼이 어렵다. 인도 기독교인 대부분이 가장 낮은 계급의 사람들이다. 또 하나의 문제는 언어다. 인도는 한 나라지만 사용하는 언어가 24가지나 된다. 사투리가 무려 180여 개다. 판카즈 전도사도 인도 북부지방 출신이라 남부지방의 언어는 잘 모른다고 했다.

브라만 판카즈에서 전도사 판카즈로

브라만 계급(과거 카스트 제도의 제1계급)인 판카즈 전도사가 3년 만에 다시 인도를 찾았다. 지난 2월 7일, CGNTV 제작진들과 함께 인도로 향했다. 예수를 만나기 전과 후가 완전히 달라져 있었다. 그를 부르는 호칭도 달라졌다. 브라만 판카즈에서 전도사 판카즈로 탈바꿈해서 간 여정이었다.

CGNTV와 함께 안도 ‘자이머시 인디아’를 시작으로 7개 도시(첸나이, 벵갈로, 하이데라바드, 바라나시, 비하르, 콜카타, 델리)를 다녔다. 그는 특히 그곳에서 사역하고 있는 선교사들의 헌신을 보고 크게 감동했다. 복음 하나 전하겠다고 머나먼 타국 땅에 온 선교사들을 보는데 눈물이 왈칵 쏟아졌다고 했다.

“아... 이것이 예수님의 제자로서 사는 거구나. 보고 배워야겠다.”

신분과 계급을 뛰어 넘어

그는 20일 동안 12명의 선교사, 선교단체, 교회 방문했다. 그가 본 인도 교회는 부흥과 핍박의 격전지였다.

‘수잔드라’라는 지역을 방문했다. 그곳은 빈부격차가 심한 지역이다. 지금껏 수잔드라 지역에 사는 낮은 계급 사람들의 집을 방문해 본 적이 없었다. 브라만이었던 그는 처음으로 낮은 계급 사람의 집을 방문했다. 우리가 보기에 아무것도 아닌 것 같지만, 인도에서는 실제로 엄청난 사건이다. 이보다 더 큰 사건도 있었다. 판카즈 전도사가 산팔라 지역에서 난생 처음 밥을 손으로 먹었다. 그에게는 이 같은 행동이 아주 중요한 관문을 통과하는 일인 것 같았다.

갠지스 강가에 서서 인도 사람들을 위해 기도도 했다. 그는 길거리에서 만난 불교 승려들을 위해서도 무릎을 꿇었다. 신분과 계급을 뛰어 넘어 오로지 복음만 전하는 그의 모습에서 사도 바울이 보였다.

이번에는 기차에서 복음을 전했다. 짐도 많고, 도난 사고도 빈번한 기차를 타고 수십 시간 가는 일정은 CGNTV 제작진에게 엄청난 고통을 의미했다. 판카즈 전도사는 기차에서 만난 사람들에게도 열심히 복음을 전했다. 그 열정에 CGNTV 제작진이 숙연해졌다.

이번 선교여행을 통해 판카즈 전도사는 인도에서 복음 전하는 일이 여간 어려운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다. 그럼에도 포기할 수 없다고 했다. 그의 선교여행은 아직도 끝나지 않았다. 이제 막 시작한 것이다.

죽어가는 땅, 후쿠시마에 희망을 싣기

2011년 3월 11일, 동일본 대지진 여파로 거대한 쓰나미가 발생했다. 후쿠시마 현에 위치한 원자력 발전소가 직격탄을 맞았다. 후쿠시마 원전 건물 4개가 폭발했고, 태평양을 포함

한 주변 지역이 방사능에 오염됐다. 그 충격적인 사고가 발생한 지 벌써 5년이 지났다. 지금 후쿠시마 현은 유령도시로 변해가고 있다. 이것이 보통 사람들이 보는 시선이다. 그곳에서 희망이 싹트고 있다. 이 한 사람의 헌신으로.

츠보이 목사는 후쿠시마 원전 사고가 나자 남들이 도망칠 때 거꾸로 후쿠시마 현으로 달려갔다.

그렇게 2011년 5월부터 지금까지 남아있는 주민들에게 맑은 물을 주고 있다. 이른바 ‘생명의 물’ 나눔 사역이다. 그는 현재까지 100톤이 넘는 맑은 물을 나눠줬다.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맑은 물을 먹기 위해 매일 찾아온다. 물을 나눠주는 창고 주변이 자동차로 2중, 3중으로 둘러싸일 정도다. 그 많은 사람들에게 물을 나눠주는 사역이 힘들지만 젊은 엄마들이 찾아와 웃으면서 인사하고, 물을 받아가는 모습에 힘이 난다. 그 엄마들은 자신의 아이에게 생명의 물 한 잔이라도 더 주기 위해 매일 찾아온다.

지난해 12월 그는 이 지역 주민들에게 감동적인 크리스마스 선물을 선사했다. 눈이 펄펄 내리는 날, 부모와 아이들 백여 명을 초청해 크리스마스 모임을 열었다. 아이들에게 과자와 선물을 주면서 성탄의 의미를 알렸다.

며칠 뒤 한 통의 편지가 도착했다. “목사님 덕분에 물도 받고, 성탄 선물도 받게 되어 기쁩니다.”

크리스마스 파티에 참석한 한 엄마가 보낸 것이었다.

츠보이 목사가 생명의 물 나눔 사역을 지속할 수 있었던 비결은 주민들 덕분이다. 츠보이 목사가 사는 지역은 수산자원이 풍부한 곳이다. 쌀도 풍족했고, 과일도 많이 났다. 그런데 방사능 오염이 심각해지면서 식량들이 줄어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의 건강에도 적신호가 켜졌다. 2,000명이던 이 지역 초등학교생들이 반으로 줄었다. 앞으로 더 많은 주민들이 이곳을 떠날 것으로 보인다. 그러다 보니 현실적인 문

제에 직면했다. 힘에 부쳤고, 무엇보다 외로웠다.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사역을 한다는 것은 고통이었다. 오죽하면 이런 말을 했을까.

“아무도 이곳을 돕지 않아요... 혼자뿐이에요. 힘들고, 두렵고, 외로워요.”

마치 예수님처럼

지난해 6월 츠보이 목사에게 희소식이 들렸다. 일본 CGNTV에서 PD로 일하던 치바 요헤이 형제 부부가 동역하겠다고 이곳을 찾아왔다. 그들 부부는 고오리야마에 있는 세계선교센터에서 훈련을 마치고 왔다. 츠보이 목사는 그들 부부가 반가우면서도 한 편으로는 안타까워했다. 결혼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젊은이가 이곳에 사역하러 왔으니 그런 마음이 드는 것이 당연하다. 앞으로 아이가 언제 태어날지 모르는데 방사능에 노출된 지역에서 사역한다는 것이 마냥 반갑지 않았다. 츠보이 목사는 그들 부부에게 한 가지 약속을 받고 품었다.

“만약 아이가 생긴다면 방사능으로부터 안전한 지역에 가서 아이를 낳아야 합니다.”

그렇게 지난해 6월부터 츠보이 목사와 치바 형제 부부가 함께 동역하게 됐다. 치바 형제는 츠보이 목사와 함께 사역하게 된 것에 큰 의미를 부여했다.

“후쿠시마 생명의 물 나눔 사역은 단순히 무료로 물을 나눠주는 것이 아닙니다. 후쿠시마에 사는 아이들, 어머니들에게 희망을 주는 것입니다. 방사능 공포에 휩싸여 희망을 잃어버린 주민들에게 새 희망을 선물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들 부부의 신앙이 보석처럼 빛났다. 얼마나 대단한 사랑이고, 섬김이고, 헌신인지 가늠하는 것이 한 줌의 빛이 되고 있다. 말 그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말씀을 완벽하게 실천하고 있었다. 그들에게 자기 자신은 없다. 마치 예수님처럼.

기고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방송



개국 11주년을 맞이한 CGNTV는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방송’을 주제로 방송 콘셉트를 정했다. 사랑으로 나누고, 섬김으로 느끼고, 복음으로 사신 예수님의 삶을 따르는 자들을 방송으로 담아내고자 한다. 이것이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시작이 아닐까 생각한다.

지난해 CGNTV의 방송적 성과가 남달랐다. ‘블랙 마운틴, 잊혀진 시간을 찾아서’와 ‘여선교사, 조선을 비추다’, ‘MK의 고백’, ‘난민 엑소더스 희망을 찾아서’ 등 다큐멘터리와 기획 보도물로 국내외적 인지도를 상승시켰다. 기독교인론상 등을 받아 다큐영화제작 능력 가능성을 인정받았다. CGNTV는 지난해 중반기부터 올해 4월까지 5개 기독교 방송사 중에 시청률 1위라는 값진 성과를 거뒀다.

새롭게 선보이는 프로그램

CGNTV는 여기에 만족하지 않았다. 올해는 ‘공유, 공감, 공생’이라는 핵심가치를 구현하며 이 땅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깊게 녹아있는 콘텐츠를 속속들이 선보일 예정이다. 이른바 가성비 좋은 프로그램을 만들려고 한다. 휴먼스토리 <거룩한 바보들>을 선보인다. 이 프로그램은 최윤영 아나운서가 진행하고,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애쓰는 평범한 이웃들의 이야기를 담아 낼 예정이다.

<통일 버스 함께 갑시다>는 CGNTV가 방영했던 <반갑습네다>와 <통일북소리>를 뒤잇는 프로그램이다. 기독교 방송 중 유일하게 통일 한국 콘텐츠를 제작한 것이다. 정은아 아나운서의 진행으로 2만 8천여 명의 탈북민들이 기독교 공동체들이 살아가는 생생한 현장을 보여준다.

공연이 어우러진 문화 토크 콘서트 <힐링 유>와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의 시즌2도 하반기에 준비되어 있다. <믿음의 씨앗 고향교회와 함께>는 정겨운 고향교회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교회의 참 의미를 유쾌하게 풀어냈다.

<나침반 바이블>은 기독교인들에게 호응과 같은 성경을 읽고, 알차게 다른 시청자 맞춤형 교육콘텐츠 프로그램이다. 저명한 목회자, 신학자들이 연이어 참여하고 있다. <나침반 바이블>은 지난 1월부터 현재까지 박은조 목사(은혜샘물교회), 김남준 목사(열린교회), 조병호 대표(성경통독원), 이한영 교수(아세아연합신학대학교 구약학) 등이 참여했다. 30분의 러닝타임(running time)이 언제 흘러갔을지

모를 정도로 강사들의 남다른 내공이 느껴지도록 방송이 만들어졌다. 열린 대담 공감토크인 <태초의 먹거리>와 <초기 내한 선교사와 한국교회사>, <마르틴 루터와 종교개혁> 등 연중 기획세미나, 창조신앙콘퍼런스, 복세미나 <책걸음>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올 한해 시청자의 시선을 사로잡게 될 것이다.

이 시대가 필요로 하는 진정한 섬김과 헌신에 대한 고민의 흔적을 찾아볼 수 있는 다큐멘터리 <담요 반 장, 동전 7전, 강냉이가루 2홉>는 서서평 선교사(엘리자베스 웨핑)의 이야기를 다뤘다. 그녀는 하나님의 품에 안기기 직전, 남아있던 담요 한 장을 반으로 찢어서 다리 밑 거지들에게 섬김을 베풀었다. 그녀의 방한 편에 적은 문구는 이렇다.

“성공이 아닌, 섬김이다.”

그녀는 보리밥에 된장국을 먹으며 고무신을 신고 조선인 친구가 아닌, 조선인이 되고자 예수를 위해 열심히 헌신했다. 서서평 선교사는 14명의 양자와 양녀를 두었고, 38명의 과부를 거두며, 가난하고 병든 이웃들에게 다가가았다. 또 한센병 환자들을 가족으로 삼아 죽기까지 섬겼다. 그녀의 일생을 다룬 선교 다큐멘터리가 오는 11월, 방영될 예정이다.

CGNTV의 강점은 다큐멘터리이다. 오늘(3일) 개국 특집 다큐멘터리, <자이머시 인디아-브라만 전도사 판카즈의 다시 만난 인도>가 오전 10시 30분에 방영된다. 또한 7월에 방영될 예정인 <아주 특별한 선물>은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의 소원을 들어주는 나눔 프로젝트 프로그램이다.

선봉적 인기 끌고 있는 ‘기독교 웹콘텐츠’

대부분의 사람들이 기독교 콘텐츠는 무료하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비기독교인도 공감한 프로그램도 있다. <KNOCK>다. 이 콘텐츠의 열풍은 초반부터 심상치 않았다. 기독교 콘텐츠의 선입견을 깬다는 평이 많다.

아직 정규 편성되지 않았지만, 지난 1월 14일, KNOCK을 위한 페이스북 페이지(www.facebook.com/cgntv.knock)가 개설된 이래로 3월 31일 현재까지 관련 동영상 3초 이상 조회된 횟수가 287만 2,224회였다. 페이스북 페이지에 ‘좋아요’를 누른 사람은 1만 9,587명에 달한다. 이 페이지의 ‘좋아요’를 누른 방문자의 79%는 13~34세로 젊은 층이 많았다. 기독교방송의 취약 시청층이라 할 수 있는 이들에게 얼마든지 유입될 수 있는 사례임

을 보여주고 있다.

SNS 기반 콘텐츠 <KNOCK>는 미니휴먼다큐, 웹드라마, 세로로 찍는 비디오, 360도 영상 등 다양한 장르의 영상을 제작해 새로운 미디어 문화 지평을 넓혀가고 있다. 특히 미니휴먼다큐 중 세 아이를 둔 평범한 가장 이요셉 전도사(양떼 커뮤니티 대표)의 ‘잃은 양 찾기’도 주목해볼 만하다. 현재 총 조회 수 144만 8,036회를 기록하고 있다. 사랑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특별한 존재로 불리는 최상현 전도사(행신침례교회)의 미니휴먼다큐 ‘데이킷 이지’도 총 조회 수 85만 2,446회로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다.

웹드라마 <봄의 춤>은 새 생명이 움트는 봄을 맞아 눈물로 기도해주는 우정 이야기를 다뤘다. 절망에서 빛을 보게 하는 사랑을 보여주며 많은 시청자들에게 공감을 선물한다. 또 다른 웹드라마 <당신의 아버지>는 우리 주변에서 흔하게 볼 수 있는 무뚝뚝한 아버지를 주연으로 해 이 시대의 아버지를 돌아보게 한다. <봄의 춤> 조회 수는 2만 3,629회, <당신의 아버지>는 조회 수 2만 6,306회를 각각 기록하고 있다. 현재도 제작하고 있는 웹드라마도 소개한다. <교회오빠의 연애 QT>가 그것이다. 이는 2030세대를 대상으로 여성에게 가장 어필할 수 있는 로맨틱 코메디 장르다. 교회 다니는 평범한 29세 청년 김요한의 연애담을 표현한 성장 드라마다. 1부로 ‘심쿵심쿵 교회오빠’가 소개되며 이는 6월 15일 첫 선을 보인다.

스마트폰을 통한 가로세로 세상이 펼쳐졌다. 영상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스마트폰은 21세기 미디어 시대에 최적화된 지능형 단말기다. 최근 들어 스마트폰 세로 비디오도 인기를 끌고 있는데, 현재 <KNOCK>란 프로그램에서 두 편의 음악 비디오를 접할 수 있도록 제작했다. 이는 싱어송라이터 홍이삭의 <하나님의 세계>이며, 힙합뮤지션 서종현의 <넌 너무 예뻐>가 그것이다. 계절에 맞춘 홍이삭의 곡 <봄아>는 지난 3월 31일에 시청자들의 시선을 이끌었다.

2만 6천 후원자들과 함께

CGNTV는 올 여름 아웃리치로 ‘찾아가는 방송 아카데미’를 진행한다. 이는 한국교회 나눔 프로젝트의 한 주축이 되리라 생각한다. 청주상당교회를 거점지역으로 카메라 촬영과 영상편집, 홈페이지 구축 등 지역교회를 위한 방송 맞춤 교육인 셈이다. CGNTV 직원들의

재능기부 이자 봉사활동의 일환인 것이다. 아시아기독교방송사 미디어콘퍼런스도 할 계획이다. 아시아 기독교방송사의 연합을 통한 크리스천 네트워크 확대와 아시아 복음화, 복음 중심의 미디어 선교방향 연구 및 미래 방송 준비의 장이 될 것이다. 이를 위해 연내 CGNTV와 홍콩 창세TV, 대만 GoodTV, 인도네시아 인도비전 등 리더십들이 이 자리에 모여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하게 된다.

CGNTV는 5개의 위성, 6개의 빔을 기반으로 한 4개 채널의 위성방송과 케이블, IPTV, 인터넷, 모바일 등으로 송출된다. 7개 해외지사와 제작센터를 통해 글로벌 선교교육 방송을 뛰어넘어 새로운 기독교 방송 생태계를 만들고자 한다. 비기독교인들도 즐길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 기독교방송의 전성시대는 아직 오지 않았다. CGNTV는 주님이 허락하신 기획력과 통찰력, 상상력을 총동원해 지구촌 모든 이들을 위한 방송 콘텐츠를 제작 및 공급해 나갈 것이다.

CGNTV는 온누리교회 뿐 아니라, 2만 6,000여 명의 후원자들과 함께 한다. 이는 어떠한 대가를 지불한다 하더라도 굳세게 이 길을 걸어갈 것이다. CGNTV의 150여 명의 직원들은 이 소명을 갖고 나아갈 것이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는 방송 CGNTV는 주님 오실 그 날까지 한 영혼을 위해 달려갈 것이다. 예수님을 바로 보여주고, 더 멀리, 더 가까이 가는 거룩한 도전을 위해, 소명을 따르는 용기의 삶을 살아갈 것을 약속한다.

/ 함태경 경영본부장

CGNTV 11주년 해외지사 발자취

- 2005년 3월 CGNTV 개국
- 2005년 8월 미주CGNTV 개국
- 2006년 10월 일본CGNTV 개국
- 2008년 6월 대만CGNTV 개국
- 2008년 10월 중남미 월드비전(위성)신학교 사역 시작
- 2010년 11월 태국CGNTV 방콕제작센터 오픈
- 2011년 9월 일본지사 47개현 교회 네트워크 구축
- 2012년 3월 아랍CGNTV 아부다비제작센터 오픈
- 2014년 9월 인도네시아CGNTV 자카르타지사 설립
- 2015년 3월 CGNTV 개국 10주년
- 2015년 8월 미주CGNTV 개국 10주년
- 2015년 8월 홍콩 CGN WORLD 설립, 창세TV MOU 체결
- 2015년 9월 태국기독교총회 MOU 체결
- 2015년 10월 이집트 반석미니스트리 MOU 체결
- 2016년 10월 일본CGNTV 개국 10주년

장로아카데미 첫 개강

영적 성숙, 리더십 개발 돕는 학습공동체

장로아카데미가 지난달 29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순형홀에서 개강 예배를 드렸다.

이날 개강예배는 유재홍 장로의 찬양, 이재규 장로의 기도, 이재훈 담임목사의 강의, 오리엔테이션, 조별 모임 순으로 진행됐다.

이날 이재훈 담임목사는 ‘낮은 곳 더 낮은 곳’과 ‘작은 예수’에 대한 말씀을 설교하고, 장로들과 ‘온누리 교회의 비전과 목회 철학’에 대해 나눴다.

장로아카데미는 이번에 처음으로 시행되는 프로그램이다. 장로들의 영적 성숙과 리더십 개발을 돕는 학

습공동체가 되는 것이 목표다. 장로들 스스로 기획하고 준비했다. 지역 장로, 시무장로, 명예장로, 협동장로 중 장립연도와 연령을 고려해 우선 40명을 선정했다.

장로 아카데미에서는 이의용 교수가 관계와 소통, 조상연 목사가 성경 통독 가이드, 이덕주 교수가 교회론과 교회사, 박종길, 김홍주 목사가 Acts29와 온누리선교, 이주연 목사가 긍휼사역과 사회선교, 이재규 교수가 과학기술과 사회의 변화, 양영식 원장이 남북관계와 통일한국의 미래, 방선기 목사가 일상생활의 영성과 일터사역, 함인희 교수가

다음세대의 이해와 교회의 책임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5월 20일에는 1박2일로 영성수련회를 계획하고 있다.

장로아카데미 대표 이장로 장로는 “벌써부터 다른 교회 목회자와 장로들이 장로아카데미에 관심을 표시하고 있다”면서 “지금은 온누리교회 장로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추후에는 외부교회 장로들도 들을 수 있는 공개강좌로 발전시켜나갈 계획”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제2차 장로아카데미는 9월 열릴 예정이다.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선교사 자녀 위한 ‘홈스쿨 가이드’ 세미나

4월 16일 오전 9시30분 Acts29비전빌리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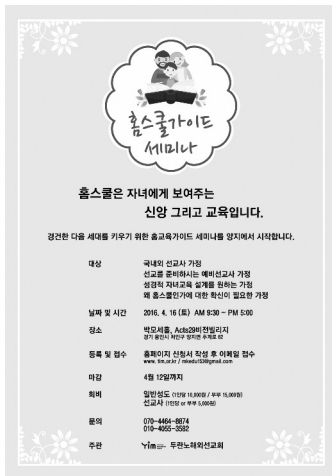
두란노해외선교회가 주관하는 선교사 자녀를 위한 ‘홈스쿨 가이드’ 세미나가 4월 16일(토) 오전 9시30분 Acts29비전빌리지에서 열린다.

이번 홈스쿨 가이드 세미나에서는 김남영 목사(한국기독교홈스쿨 협회 대표)가 홈스쿨의 필요성과 유익, 부모의 역할 등을 주제로 강의한다. 홈스쿨을 하고 있는 부모와 자녀들의 생생한 간증도 들을 수 있다. 선교사 부모, 예비 선교사 부모, 성경적 자녀 교육을 원하는 부모, 홈스쿨을 망설이고 있는 부모들이 참가하면 유익하다.

참가신청은 www.tim.or.kr에서 신청서를 내려 받아 작성하고, 메일(mkedu@gmail.com)으로 보내면 된다. 참가비는 1만원(부부는 1만5천원), 선교사는 5천원. 4월 12일까지 접수를 받는다.

이번 홈스쿨 가이드 세미나는 선교사 자녀들을 위한 홈스쿨 교육센터 올네이션스 홈스쿨 아카데미(All Nations Homeschool Academy)개원을 위한 첫 걸음이다.

두란노해외선교회는 이번 세미나를 시작으로 매월 홈스쿨 관련 세미나를 개최할 계획이다.



문의: 한상철 선교사
070-4464-8874
/ 김영선 기자 k4458@onnuri.org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14주년 기념예배에서 케이크 커팅을 하고 있다.

청파 7주년, 용산 14주년 기념예배

최동현 집사 온누리복지재단에 쌀 100포대 기부

지난 29일에는 청파노인복지센터가 개원 7주년, 31일에는 시립용산

노인종합복지관이 개관 14주년 기념예배를 드렸다.

청파노인복지센터 백학 센터장은 “받은 사랑을 어르신들과 지역에 나누주는 행복한 공동체가 되도록 더욱 열심히 노력하겠다”고 했고, 시립용산노인종합복지관 이성희 관장은 “어르신들과 함께 영혼의 강건함으로 꿈 넘어 꿈을 이루어 갈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한편, 서빙고공동체 최동현 집사가 온누리복지재단에 쌀 100포대를 기부했다. 최 집사가 기부한 쌀은 온누리복지재단 산하기관 변동코이노니아와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에 30포대, 청파노인복지센터와 온누리요양센터에 20포대씩 전달됐다. 23일에는 최 집사가 변동코이노니아를 직접 방문했다. 최 집사는 “내 일에만 매진했던 것이 부끄럽다”면서 “앞으로도 받은 사랑을 더 많이 나누고 싶다”고 말했다.

/ 김영선, 이소정 기자

모집

‘일대일 과목별 특강’ 수강생

일대일사역팀에서 ‘일대일 과목별 특강’ 수강생을 7일까지 모집한다. 일대일 과목별 특강은 4월 10일부터 6월 12일까지 8주 동안 서빙고 선교관 101호에서 오전 8시 10분에 진행된다. 8월 28일부터 11월 13일까지는 하반기 일대일 과목별 특강이 실시될 예정이다. 참가신청은 전화나 아이스쿨로 하면 된다.

일대일 과목별 특강은 일대일 양육자들을 위한 보수교육이다. 과목당 1명의 교육강사와 1명의 나눔강사가 일대일 제자양육 노하우를 전수해준다. 일대일 제자양육 방법에 대해 배우고 싶은 성도라면 누구나 수강할 수 있다.

문의: 오승탁 집사 010-3004-3311

/ 정현주 기자 joo@onnuri.org

온누리시니어선교학교 1기 훈련생

2000선교 본부에서 온누리시니어선교학교 1기 훈련생을 모집한다. 은퇴한 50대 이상 성도들이 대상이다. 인생 후반전을 가치 있게 보내기 원하는 성도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다.

훈련은 4월 19일부터 5월 31일까지 7주 과정으로 매주 화요일 오전 10시부터 서빙고 한동홀에서 진행된다. 선교적 기도, 교회의 사명, 시니어 선교의 사명, 영성, 삶, 온누리교회 시니어선교 사역 등을 배운다. 21세기시니어선교회 조은제 원장(의사, 일본선교사), 기정희 부원장(정신과 전문의) 외 다수의 전문 강사들이 강의를 할 예정이다.

문의: 김기범 010-3377-5167

/ 정현주 기자

서빙고 헬로맘 출산 후 스쿨 수강생

헬로맘 출산 후 스쿨에서 4월 15일까지 수강생을 모집한다. 헬로맘 출산 후 스쿨은 임신을 준비하는 예비엄마들과 자녀를 양육하고 있는 여성들을 위한 스쿨이다. 4월 15일부터 6월 10일까지 매주 금요일 오전 10시30분에 서빙고 선교관 시온홀(지하 2층)에서 진행된다. 수강료 6만 원. 점심식사 제공. 문의: 010-5018-0241

/ 정현주 기자

북한선교학교 수강생

북한선교학교 수강생을 모집한다. 4월 12일부터 5월 17일까지 6주 동안 매주 화요일 오후 7시 20분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열린다. 참가신청은 온라인(www.ionnuri.org)으로 하면 된다. 선착순 80명 모집. 회비는 5만원.

문의: 김정섭 총무 010-3301-2897

/ 이소정 기자 s2868@onnuri.org

월요치유집회, 월요어노인팅집회로 명칭 변경

월요치유집회의 명칭이 4월 1일부터 ‘월요어노인팅집회’로 변경됐다. 월요어노인팅집회는 매주 월요일 서빙고 온누리교회 비전홀에서 저녁 7시에 열린다. 월요치유집회는 2008년 시작했다. 김성진 장로가 인도하고 있다.



오카야마 기 · 도 · 제 · 목

- 4월4일(월) 이번 집회를 통해 일본 전역의 영적 기상도가 변화되기를
- 4월5일(화) 실행위원들에게 지혜와 영혼 구원의 열정을 불어넣어 주시기를
- 4월6일(수) 고령화된 오카야마 교계에 다음세대가 일어날 수 있도록
- 4월7일(목) 이재훈 담임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영혼들이 주께로 돌아오도록
- 4월8일(금) 80개의 협력교회, 2,000명의 전도 대상자들이 집회에 참석하도록
- 4월9일(토) 강사, 출연진, 스태프, 봉사자들이 성령 충만과 사랑으로 섬기도록
- 4월10일(주일) 모든 순서마다 기쁨 부어주시고, 섬기는 손길에 은혜주시기를

*바로잡습니다

지난 주(1092호) 신문 8면에 게재 된 군포시청소년쉼터하나로 영예교사 김은경 성도의 소속 공동체는 서초B공동체이기에 바로잡습니다.

■ 영화 '일사각오'를 보고



/ 한옥영 성도(여의도공동체)

부활의 기쁨에 흠뻑 빠져 지낸 부활절 다음 날 저녁, 여의도공동체 식구들은 여의도 CGV로 발걸음을 재촉하였다. 일제의 신사참배 강요에 죽음으로 항거한 주기철 목사님의 영화 '일사각오'를 관람하기 위해서였다.

불이 꺼지고 영화가 시작되자 나의 마음이 점점 먹먹해졌다. 믿음을 얼마나 가벼이 여기며 살아가고 있었는가? 믿음을 위하여 나는 무엇을 포기한 적이 있는가? 예수님의 사랑을 입으로는 크게 이야기하면서 그 사랑을 행동으로 보여주고 있었는가? 내게 주어진 작은 십자가를 떠벌리며 마치 엄청난 소명을 안고 살아가는 듯 자랑하고 있지는 않았는가?

믿음은 절대로 가벼워서는 안 되는 것이며, 가벼울 수도 없다는 것을 이 영화를 통하여 다시 한번 깨달았다. 기복신앙처럼 우리의 안녕과 행복을 위해 믿어서는 안 된다. 믿음은 그런 것이 아니다. 진리를 위해서는 거대한 힘에 맞설 수 있는 힘이고, 죽음으로라도 지켜내야 하는 것이 믿음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며 신앙의 순결을 지키고자 항거하던 주기철 목사님.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와 사랑 때문에 고통을 견딜 수 있었다고 고백하였다.

살아도, 죽어도 그리스도인답게

“주님은 나를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최후의 피 한 방울까지도 다 쏟으셨습니다. 주님은 이렇게 날 위해 죽으셨거늘 내 어찌 죽음을 무서워 하리요!”

주님의 은혜로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이 마치 나의 노력으로 이루어진 듯 착각하고, 그것을 빼앗길까봐 아등바등 움켜쥐고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바라보게 되었다. 주님이 주신 그 사랑으로 인하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기꺼이 내어드릴 수 있는 것이 진정 믿는 자의 삶이다. 그러한 삶을 살아가리라 다짐했다.

부활의 아침에 느꼈던 기쁨과 영광의 감정이 영화를 보고난 후 거룩한 부담감으로 다가왔다. 부활의 기쁨에 동참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십자가의 길을 가야 한다. 십자가 없는 부활은 존재 할 수 없기 때문이다.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기 위하여 모든 것을 내어드릴 수 있어야 한다. 순교자의 길을 가며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전할 것인지, 아니면 세상과 타협하며 신념을 버리고 이 땅에서의 평안만을 쫓을 것인지 선택의 길에 서 있다. 나는 내가 아는 참 좋으신 예수님의 사랑을 세상에 알리고, 나의 다음 세대가 그분의 사랑에 힘입어 살아갈 수 있기를 꿈꾼다.

■ 헬로맘스쿨 수료 간증



/ 임주원 성도

나는 여진, 여호수아 두 남매의 엄마다. 36살에 남편을 만나서 결혼하고 바로 큰 아이를 임신했다. 온누리신문을 통해 헬로맘 임산부스쿨을 알게 되었다. 성경적 태교법과 예배의 사모함을 갖고 뱃속에 있는 여진이와 함께 헬로맘 임산부스쿨을 신청했다.

정말 유익한 시간이었다. 남편과 시부모님에 대해 폭넓게 이해할 수 있는 강의도 들었고, 가정에서 아내와 엄마의 역할이 얼마나 중요하고, 소중한지도 깨달을 수 있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가정에 주신 자녀는 부모의 소유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임을, 부모는 맡겨주신 자녀를 잘 양육하는 청지기라는 것을 가슴 깊이 간직하게 되었다.

10시간 진통 끝에 큰아이 여진이를 출산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 고통을 묵상했다. 여자로 죽음의 시간, 그러나 엄마로 다시 태어나는 부활을 경험했다.

여진이와 함께 시작한 엄마로서의 삶은 정신없음의 연속이었다. 그 때 임산부스쿨에서 배운 것들이 정말 많은 도움이 됐다. 말씀으로 출산을 준비했던 시간이 중요하다는 것을 여진이를 낳고 키우면서 뼈저리게 느꼈다.

남편은 성악을 전공하고, 교회 성가사로서

아내와 엄마의 소중함을 배웠다

오랫동안 섬겨왔었다. 그리고 목사님의 권유로 신학 공부를 하고자 미국 유학을 준비하게 되었다. 추천서 등 서류 준비와 더불어 영어 공부도 해야 했는데 계획대로 되지 않아 어려움이 있었다. 당시 우리 가족이 생활하기에 재정도 턱없이 부족했었다. 어디 가서 하소연할 곳도 없어 답답해하던 나는 새벽예배에 가서 하나님께 호소해야겠다고 마음먹었다.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은 나에게 한줄기 소망의 빛을 비춰주셨다. 그리고 헬로맘 스태프 모임이 있는 수요일마다 교회에 가게 하셨다. 그곳에서 서로의 삶을 나누고, 기도하면서, 점차 새 힘을 얻을 수 있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둘째 여호수아를 주셨다. 둘째 임신 후 남편은 유학하려던 마음을 접고 취직했고, 둘째 아이도 무사히 출산했다.

하루하루 다르게 자라는 아이들을 보고 있노라면, 날마다 숨 쉬는 순간순간을 감사하게 된다. 헬로맘스쿨을 통해 얻은 지혜, 마음의 안정, 교제가 참 귀하고 소중하다. 우리 가정을 위해 중보기도 해주신 남양주 온누리교회, 성북 공동체 순식구들께 감사의 마음을 전한다. 우리 가정은 오늘도 예수님을 붙잡고, 아름답고, 성실하게 살아가고 있다.

■ 청년단기선교 프로그램 FA 간증



/ 박정선 자매(FA 10기)

뻔뻔하고, 편(fun)하게

선교에 대한 마음의 울림이 있을 때마다 막연한 두려움이 있었다. 그 두려움을 직면하기 보다 보내는 선교사 역할이라도 충실하자는 다짐이 나를 제한시켜 왔다. 그런데 이번 FA(Frontier Agency) 10기 홍보영상은 내 마음에 조용한 울림으로 다가왔다. 더 이상 반응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러나 FA신청서를 제출하기 전까지도 여전히 내 안에 두 마음이 치열하게 싸우고 있었다. FA를 가야 하는 합당한 이유들이 생겼고, 외부적인 상황까지도 자연스럽게 정리되었는데도 주저했다.

FA신청서를 제출한 이후 내 마음이 놀랍게 변화되었다. 고집과 내면의 완악함, 완전하게 순종하지 못하고 적당히 순종하지는 내 욕심이 부드러워졌다. 하나님의 만지심이 아니었다면 FA 신청은 불가능했을 것이다.

합숙훈련이 시작됐다. 날마다 새로운 은혜를 경험했다. 3주 동안 규칙적인 생활과 새벽운동으로 영육을 강건하게 해주셨다. 생생한 선교현장과 목회 경험을 토대로 한 강의는 깨달음을 줬다. 그동안 몸에 배어 있던 감사와 예배 태도를 돌아보게 하였고, 진정한 회개를

하게 하셨다. 하나님 앞에서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그분의 임재를 경험했다. 하나님은 날마다 나의 영을 새롭게 만져주셨다.

후원자 모집과 초기 정착비용 증가가 내 상황을 정신없게 했지만 그 와중에도 내가 평안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간섭해 주셨다. 모든 것이 물 흐르듯 원활하게 진행되었다. FA 팀원들과의 소통도 원활했다. 각자의 개성과 성향도 주 안에서 하나였다. 역시 주님의 지혜와 사랑이 해답이었다. FA를 준비하는 과정을 통해 그동안 함께 했던 공동체 지체들의 소중함을 다시금 느꼈다. 그동안 분에 넘치는 사랑을 받고 있었음을 깨달았다.

우리는 동아시아B국의 한 부족을 섬기려 간다. 우리팀의 특성대로 그 민족에게 뻔뻔하게 다가가고, 편(Fun)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기도를 부탁한다. 그들의 외모는 중앙아시아 사람들과 같고, 80~90%가 무슬림이다. 소외되고, 차별받는 그 부족들의 친구가 되어주려고 한다. 우리의 참 친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뻔뻔하고, 편(Fun)하게 전하고 돌아오겠다.

■ Point5공동체 선교마라톤 참가 후기



/ 김대연 성도(Point5공동체)

마라톤과 하나님

지난겨울 고민 끝에 이직을 했다. 다행히 일은 즐거웠는데 떠나지 않는 걱정들이 내 머리속을 어지럽혔다.

“새로운 일을 도전하기에 나이가 너무 많은 것 아닐까?”, “내 선택이 옳은 결정일까?”

새로운 일에서도 성공하고 싶고, 결혼도 하고 싶은데 뜻대로 되지 않는 것 같았다. 가장 중요한 하나님과의 관계도 점점 더 소원해지는 것 같았다. 끔찍했던 중 point5공동체에서 선교마라톤 참가자를 모집한다는 광고를 보게 됐다. 영화 ‘포레스트 검프’의 주인공처럼 “나도 사람들과 뛰다 보면 복잡한 생각이 어느 정도 정리되겠지”라는 막연한 생각으로 등록했다. 대회를 준비할 때도 그렇고, 대회에 나가서 땀 뻘까지도 아무런 생각이 없었다. 대회 이후 간증을 쓰면서 그 날을 천천히 돌이켜봤다.

마라톤을 시작했을 때 나는 기운이 넘쳤다. 같이 뛰는 사람들을 격려하면서 달렸다. 중간쯤 내가 힘이 빠졌을 때에는 같이 뛰던 형제들에게 의지하면서 페이스를 조절했다. 마지막에는 같이 뛰던 형제들을 앞으로 보냈다.

그리고 혼자 ‘선교는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달렸다. 힘이 들면 걷기도 했다. 그렇게 목표 지점에 도착했다. 이 과정을 돌이켜 보면 선교마라톤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과 비슷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내가 힘이 있고 능력이 될 때에는 연약한 사람들을 격려하고, 이끌어야 한다. 내가 힘이 없을 때에는 다른 형제자매들에 의지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지 말고 감사하게 도움을 받아야 한다. 또 혼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계획을 묵상하는 시간을 소중하게 여겨야 한다. 이런 모습을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않을까. 한 번의 마라톤이 내 삶을 송두리째 바꾸지는 못할 것이다. 앞으로도 연약한 나는 여러 번 넘어질 것이다. 그래도 이 원칙을 가지고 살아가면 지금보다 하나님과 더 가까워질 것이다.

나와 같은 고민을 하는 청년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능력 안에서 매 순간 최선을 다하고 감사하기를 권한다. 선교에 대한 생각이 떠오르면 ‘내가 어떻게 선교에 쓰일 수 있을까’를 걱정하지 말고 행동으로 옮기길 바란다. 선교는 하나님이 하시기 때문이다.

장로칼럼

인생 후반전의 즐거운 선교 헌신



남명현 장로
(성북공동체)

나는 이 글에서 <인생의 후반전은 시니어 선교사로>라는 책 내용을 나누고 싶다. 한국이 빠르게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면

서 많은 사람들이 노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를 고민하고 있다. 이 책은 그런 고민을 하고 있는 중장년 크리스천들에게 시니어 선교사로서, 가치 있는 인생의 후반전을 보내라고 격려하고 있다.

고령화 되어가는 한국, 그러나 이에 대한 대비는 얼마나 되어 있을까. 지금 시대는 가부장적 문화에서 민주적인 문화로 변화되었고, 핵가족화로 인해 자녀와 떨어져 사는 시대가 되었다. 교육의 대중화와 빠른 정보 유통으로 지혜보다는 인터넷 포털사이트에서 더 많은 지식을 얻고 있다. 중장년층들이 이런 시대의 흐름과 문화적 변화에 적응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다. 또한 과중한 업무와 책임에 짓눌려 지내고 있는 직장인들의 대부분이 은퇴이후 여유를 꿈꾼다. 그러나 녹록치 않다. 평균 수명이 길어지면서 노년기 기간도 20~25년으로 길어졌다. 평균 수명은 늘어났는데 은퇴 연령은 오히려 낮아졌다.

은퇴이후 세상으로부터 격리되고, 존재감이 없어지게 되면서 우울증을 경험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 그래서 이 책에서는 두 번째 인생에 새로운 의미를 찾아야 한다고 말한다. 가치 있는 인생의 후반전 시니어 선교사로 헌신하라고 격려하고 있다.

시니어 선교사는 여러 장점이 있다. 시니어들은 대인관계에 능숙하고, 자녀양육의

부담이 적고, 재정적으로 안정되어 있다. 또한 신앙적으로 건실하며, 즐겁게 사역에 임하는 경우가 많다. 반면 짧은 사역 기간, 신학 공부, 언어 습득, 젊은 선교사와의 협력 등 극복해야 할 과제도 있다. 하지만 신학과 무관하게 할 수 있는 다양한 사역과 봉사가 있고, 언어 습득의 속도가 느릴 뿐이지 아주 불가능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충분히 해 볼 만 하다. 다만 젊은 선교사와의 팀워크를 위한 사전 훈련이 필요하다.

전문지식과 인생 경험으로 무장한 중장년층이 시니어 선교사가 되기 위해서는 준비가 필요하다. 이에 발맞춰 2000선교 본부에서 중장년층들을 위한 ‘온누리시니어선교학교’를 개강한다. 시니어 선교의 시대적 사명과 영성, 온누리 시니어 선교 사역의 예, 하나님 나라와 교회의 사명 등의 커리큘럼으로 진행된다. 경륜의 황금기인 시니어들에게 확고한 선교 마인드를 고취시키고, 삶을 통하여 쌓은 지식과 경험을 활용해 즐겁게 선교사역에 동참하도록 도와줄 것이다. 보다 행복하고 가치 있는 삶을 영위하도록 인도해 줄 것이다.

아브라함, 야곱, 모세, 여호수아 등 성경 속 많은 인물들이 노년에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일을 시작했다. 자신의 지식과 경험으로 선교사와 선교지의 영혼을 돕고 싶은 시니어라면 도전해 보자.

온누리시니어선교학교 1기 모집

기간: 4월 19일 ~ 5월 31일, 오전 10시
장소: 서빙고 한동홀
문의: 김기범 010-3377-5167

권사칼럼

책으로도 선교할 수 있다



김명옥 권사
(관악금천공동체)

책으로도 선교할 수 있다. 누구나 어렵지 않게 할 수 있는 선교다. 책으로 하는 선교는 해외 선교사와 동포들에게 신앙서적

과 성경을 보내는 것이다. 나는 지난 20년간 해외동포들에게 우리글로 쓰인 책을 보내는 사역을 하고 있다. 그런데 처음부터 신앙서적과 성경을 보내는 선교를 생각하지는 않았다.

해외동포들에게 책을 보내는 사역은 한 성도로부터 시작됐다. 과거 그 성도가 브라질 국제한국학교에 방문했다. 한국어를 가르치는 학교였는데 한국어로 쓰인 책이 단 한권도 없었다. 그때 학교관계자들이 한국에 가면 우리말 책을 보내달라고 부탁을 했다. 한국에 돌아와 지인들에게 부탁을 해서 책을 모았는데 제법 많이 모였다. 그때부터 책을 보내주는 것이 소문이 났다. 그 이후 전 세계에서 책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쇄도했다. 각국의 대사, 영사, 문화원장들이 우리말 책을 요청했다.

카자흐스탄, 우즈베키스탄, 키르기스탄, 연변 등 세계각지에 퍼져있는 고려인, 조선족들에게도 책을 선물하고 있다. 그들에게 단순히 책을 선물하는 것이 아니다. 타국관리에서 고향을 그리워하는 이들에게 우리말과 문화를 전하는 것이다. 누군가의 책장 한 칸을 차지하던 책 한권이 우리의 말과 글 문화를 계승하는 중요한 수단이 되는 것이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에

요. 우리말과 글을 자손 대대로 물려줘서 우리 문화를 계승해야 합니다. 우리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책 한권입니다.”

책을 바리바리 싸들고 찾아가면 동포들이 그 책을 붙들고 눈물을 흘린다. 여기에 최근 제3세계에서 한국어 바람이 불고 있다. 덕분에 우리말 책을 요청하는 단체들이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보통 한국어를 배우는 외국인들은 우리말 책 한 권을 두세 번씩 정독한다.

여기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보낸 책들이 단순한 서적이 아니라 신앙서적이나 성경이라면 어떨까. 외국학교, 문화원, 동포의 가정에 보낸 책들이 신앙서적이고, 그들이 그 책을 수차례 읽는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10명 중 한 두 명이 예수를 영접하고, 그들이 이웃에게 예수를 전한다면 엄청난 부흥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것이 바로 책으로 하는 선교다.

실제로 신앙서적과 우리말 성경을 보내달라는 요청이 늘고 있다. 한국에서는 쉽게 구할 수 있는 <생명의 삶>, <목회와 신학>, <빛과 소금> 등 여타 신앙 서적과 우리말 성경이 외국에서는 구원으로 가는 안내서가 된다.

온누리교회 성도들은 국내외 아웃리치를 참 많이 간다. 아웃리치를 갈 때 신앙서적과 우리말 성경을 몇 권 준비해가는 것이 어떨까? 당장은 아무도 읽지 않고 책장에 꽂힐지 모르지만 누군가에게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는 안내서가 될 것이다. 누구나 할 수 있는 책으로 하는 선교를 지금부터 시작해보자.

문의: 해외동포책보내기운동협의회
02-3442-1937

신앙에세이



신동식 목사
(성북공동체)

옛날 어느 왕이 잔치를 벌이려고 신하들에게 포도주 한 병씩 가지고 오라고 했다. 항아리 안에 포도주가 가득 찼다. 잔치를 벌이려던 왕이 항아리의 포도주를 맛보고 깜짝 놀랐다.

항아리의 포도주가 거의 맹물 같았기 때문이다. 신하들이 ‘나 하나쯤은 괜찮겠지’라는 마음으로 물만 포도주를 가져오거나 심지어 물을 붓기까지 했다. 많은 사람들이 동시에 그렇게 하자 항아리 안 포도주가 맹물같이 희석되었다. 심리학에서는 이 같은 상황을 ‘링겔만 효과’(Ringelmann effect)라고 한다.

100년 전 독일의 심리학자 링겔만은 집단 속에 참여하는 개인의 수가 늘어날수록 공헌도가 떨어진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줄다리기를 할

힘을 통해 혼자 당길 때는 100%의 힘을 내던 개인이 3명이 될 때는 85%, 8명이 당길 때는 49%의 힘만 쓰게 된다는 것이다. 천문학적인 몸값을 자랑하는 선수들로 드림팀을 만들어도 성적이 저조하거나, 당대 최고 몸값의 배우들이 뭉쳤지만 흥행에 실패하는 사례도 이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신에게 명확한 역할과 책임이 부여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 가운데 한 사람으로 존재할 때 최선을 다하지 않게 될 가능성이 높다는 뜻이다.

미국에서 진행한 이색 실험이 링겔만 효과를 반전시키는 결과를 나타냈다. 한 사람이 수영할 때 도둑 역할을 맡은 사람이 귀중품을 가져가게 하는 설정이었다. 수영 전 주변 사람에게 “제 물건을 좀 봐주세요”라고 직접 부탁을 했더니, 20명 중 19명이 도둑을 잡으려고 했다. 하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20명 중 단 4명만이 도둑을 잡으려고 했다. 방관자일 때는 최선을 다하지 않지만, 자신이 약속한 경우에는 위험과 불편함을 감수하면서까지 노

행복한 불편함

력한다는 것이다. 링겔만 효과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개인에게 명확한 책임의식과 비전이 필요하다. 먼저 자신에게 그리고 하나님 앞에 다짐하고 결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온누리교회가 4월 10일 대중교통을 이용해 교회 오기 캠페인을 벌인다. 성도들이 잘 협조해 좋은 결과를 이루어낼까. 아니면 링겔만 효과로 그 취지가 흐릿해질까. 캠페인을 통해 불편함의 진정한 의미가 묵상되어야 한다. 자동차를 가져올 수 없기 때문에 캠페인에 동참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약속하고, 의미를 가지고 동참해야 한다. 부모는 자녀에게 왜 우리가 대중교통을 이용해야하는지를 설명해 주어야 한다. “오늘은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날이야”라는 설명만으로는 부족하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려는 그리스도인은 책임의 범위가 넓어진다. 기도하면 기도의 지경이 넓어지듯, 책임도 개인에서 이웃과 사회와 국가와 세계로 넓어지는 것이다. 그리스도인이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복음 전파뿐 아니라 우리

가 살고 있는 환경과 이웃을 배려하는 것은 당연하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것이 작게 보이지만 말씀의 적용이다.

4월 10일이 기대된다. 불편하지만 행복한 것이다. 우리는 불편함을 경험하면서도 행복해지고 평안해질 것이다. 편리함과 평안함은 다르다. 편리함은 돈으로 살 수 있지만, 평안함은 돈으로 살 수 없다. 그리스도인이 불편함을 추구하는 것은 ‘수행’이 아니라 ‘공감’이다. 해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이 아니라, 자연스럽게 배려해야 한다. 불편함을 통해 평소에 보지 못했던 것을 보고, 공감하지 못했던 것을 공감하고, 실천하지 못했던 것에 도전해야 불편함 속에 평안함이 생긴다. 자동차를 타고 교회에 올 때 미처 보지 못했던 교회 주변을 돌아보고, 대수롭지 않게 여기던 날씨와 환경을 생각하고, 교회 주위의 어려운 식당을 이용하고, 교회 주변 주민들을 배려하자. 행복한 불편함이 불편함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불편함은 나 자신과 이웃에게 살림으로 이어져야 한다.



주일강단

〈3면에 이어〉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다

유명한 수학자이자 철학자였던 데카르트는 “나는 생각한다. 그러므로 나는 존재한다”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생각이라는 말을 ‘의심’으로 바꿔야 합니다. 뭐든지 그대로 믿지 말고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수학처럼 모든 것이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 않는 것은 의심해 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이 이런 사상에 빠져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경험한 것만 믿을 수 있습니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할 때 가설을 세웁니다. 가설을 세우고 연구하고 실험을 합니다. 가설을 세울 때 어느 정도 믿음이 필요합니다. 조금도 가능성이 없는 것을 가설로 세워놓고 실험을 하는 과학자는 없습니다. 다 증명되고 가설을 세웁니까, 아닙니다. 일단 가설을 세우고, 실험을 시작합니다. 가설을 세울 때는 믿음으로 세우는 것입니다. 과학적인 발견도 신비로운 세상에 대해서 믿음으로 두들기며 발견하는 것입니다. 다 증명된 것만 발견하는 것이 아닙니다. 운동을 할 때도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바퀴가 두 개가 달린 기구가 넘어지지 않고 달릴 수 있다는 믿음이 없는 사람은 절대로 자전거를 못 탑니다. 불신이 있는 사람은 절대 탈 수 없습니다. 물에서 허우적거리거나 수영을 못 배우는 사람은 물에 대한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빠지지 않는다는 믿음이 있어야 수영을 합니다. 그 믿음이 없기 때문에 계속 발버둥 치면서 더 빠지는 것입니다. 믿음이 있으면 물에 자신을 맡길 수 있습니다. 그때 움직이면 앞으로 가는 것입니다. 생명의 기원에 대해서 우연이라고 밖에 설명하지 못하면서 부활에 관해서는 믿을 수 없다고 말하는 것 자체가 모순입니다.

도마를 만나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의심하는 도마를 온유하게 만나주십니다. “8일 후에 예수의 제자들이 다시 그 집에 모였고 도마도 그들과 함께 거기 있었습니다. 문이 잠겨 있었는데 예수께서 들어와 그들 가운데 서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

셨습니다. ‘네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만져 보고 네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 보아라. 그리고 믿음 없는 사람이 되지 말고 믿는 사람이 되라’”(26~27절).

흥미로운 사실들이 발견됩니다. 문이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들어오셨습니다. 초자연적인 예수님의 몸입니다. 예수님이 도마에게 “네 옆구리를 만져보고 내 손을 만져보아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발견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새로운 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처음에는 예수님의 얼굴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어떤 변화가 일어난 것입니다. 예수님의 생전에는 이사가 53장처럼 볼품없고, 사람들이 흠모하는 것이 없을 만큼 멋진 얼굴이 아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부활하신 영광스런 예수님의 모습은 광채가 났을 것입니다. 그러려면 십자가의 상처가 없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몸에는 상처가 있었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에 상처가 있다는 것은 그 상처를 남겨 두셨다는 것입니다. 놀라운 사실입니다. 그 상처를 다시 만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지만 상처를 남겨두셨습니다. 도마처럼 회의적이고, 의심하고, 자신의 눈으로 보고, 만진 것만 믿는 자들을 위해서 상처를 남겨두셨습니다. 도마에게만 보여주고 완전히 사라지게 했을까요. 아닐 것 같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에게는 지금도 그 상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천국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실이었다는 것을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을 보고 알게 될 것입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음 있는 자가 되어서라.” 그때 도마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의 기질 속에, 성격 속에 숨어있는 깊은 회의가 이제는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그의 의심을 받아주시고, 만나주셨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온유하신 예수님입니까. 그리고 한 말

씀 더 하셨습니다. “그러자 예수께서 도마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나를 보았기 때문에 믿느냐? 보지 않고도 믿는 사람은 복이 있다’”(29절).

보지 않고도 믿는 자는 복이 있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지금은 승천하셨기 때문에 다시 오실 때까지 우리는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볼 수 없습니다. 꿈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어떤 환상으로는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육체로 계신 예수님을 만질 수 없습니다. 볼 수 없지만, 만질 수 없지만, 부활하신 그 예수님이 살아 계심을 믿는 자는 도마보다 훨씬 복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의심을 통해 믿음에 이르게 되지 않습니다. 앎을 통해 믿음에 이르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을 통해 알게 되는 것입니다. 보지 못하고도 믿는 사람의 축복에 대해서 유대인 랍비 ‘시몬 벤 락큐’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교도에서 개종한 사람들은 시내산에서 있었던 유대인들보다 더 귀한 존재이다. 유대인들은 천둥과 불꽃과 번개와 요동하는 산과 나팔소리를 목격하지 않았다면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이지 않았을 것이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중 아무것도 보지 못한 이들은 보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자신을 드리며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들인다. 이보다 더 귀한 사람들이 어디 있을까?”

베드로도 보지 못하고 믿는 자들을 보며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벧전 1:8-9).

자신은 예수님을 눈으로 보고, 만지고, 함께 자고, 동고동락 했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의심하고, 십자가 앞에서 도망하였지만 예수님을 직접 만나보지도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만져보지도 못했지만 믿고, 순종하고, 배반하지 않고, 순교하는 이들을 보며 놀라워하고 있습니다. 보지 않고도 믿는 자가 복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의 눈으로 보고, 신약의 증거를 믿고, 부활을 증거하고, 순교하기까지 의지했던 이들처럼 보지 않고 믿고, 순종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 정리 김남원 부장 one@onnuri.org

두란노 신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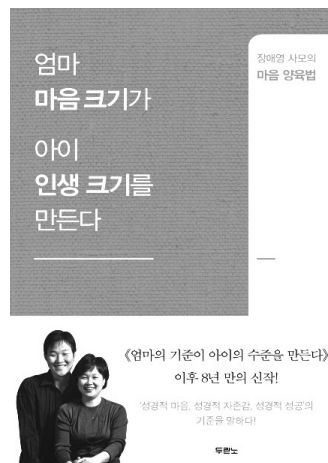
예수님처럼 말하고, 듣고, 섬기면

〈엄마 마음 크기가 아이 인생 크기를 만든다〉

장애영 저 | 두란노 | 13,000원

저자 장애영 사모(하나교회 최종명 목사)는 미국아로 태어난 이들의 잦은 병치레를 통해서 올바른 양육방법을 발견했다. 자녀는 부모의 소유가 아니라 하나님이 잠시 부모에게 맡긴 주님의 소유라는 것을 깨닫게 된 것이다. 저자는 자녀와 갈등하고, 해결해야 할 문제를 만난 것은 내가 먼저 주님 앞에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다고 이야기한다. 무엇보다 엄마의 마음이 건강해야 자녀의 마음도 건강하다고 말한다.

하나님은 부모를 먼저 예수님의 마음으로 회복시키신 뒤 자녀가 말씀에 순종하는 축복을 받도록 하신다. 이 책에는 말씀을 바탕으로 한 교육방법은 물론 장애영 사모가 아이들을 양육하면서 경험한 이야기들도 기록되어 있다. 자녀를 어떻게 양육할지 모르거나 자녀와의 갈등을 어떻게 풀어야할지 모르는 부모에게 저자는 이렇게 말한다.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듣고, 예수님처럼 섬겨 보려고 애쓰는 부모라면 그 자녀는 날마다 믿음의 지경과 넓이와 깊이가 성장할 것입니다.”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마태와 함께 예수를 따라〉

김기석 저 | 두란노 | 13,000원

마태복음은 예수님의 삶이 고스란히 기록된 말씀이다. 이 책의 저자 김기석 목사는 마태복음의 핵심이야기를 중심으로 설명하고 있다. 간결하고, 분석적인 51개의 텍스트를 중점적으로 다뤘다. 그리고 그것을 바탕으로 9편의 설교를 엄선해 독자들에게 말씀의 본질이 무엇인지 명확하게 전달하고 있다.

이 책에서는 마태복음에 등장하는 다양한 비유들도 다루고 있다. 잃은 양의 비유, 알곡과 가라지, 옥토 비유, 부자와 천국, 달란트, 겨자씨와 누룩 등 주옥 같은 비유들에 대한 명쾌한 해석이 돋보인다. 그리고 성경 당시의 배경도 설명해서 마치 마태와 함께 예수님과 동행하는 기분을 느낄 수 있다.

독자들이 궁금해할만한 장면에서는 김기석 목사의 풍부한 해설로 이해를 도와준다. 마태복음의 주요 메시지를 이해하고 싶거나 예수님과 동행하고 싶은 성도들에게 추천한다.

